

제2714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여야,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합의 10



정몽구 '백신 혁신센터'에 100억 기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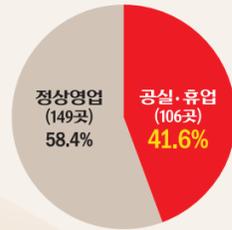
코스피(31일) ▲ 3199.27 (+55.08P) 코스닥 ▲ 1038.33 (+6.49P)
환율(달러당 원화) ▼ 1159.50 (-7.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1.395% (-0.003%p)

불 꺼진 명동

100여 년 동안 서울의 문화와 소비 중심지 역할을 해온 명동에 불이 꺼지고 있다. 전 세계 경제를 암흑으로 밀어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곳곳이 신음했다. 그중 명동의 면역력은 유독 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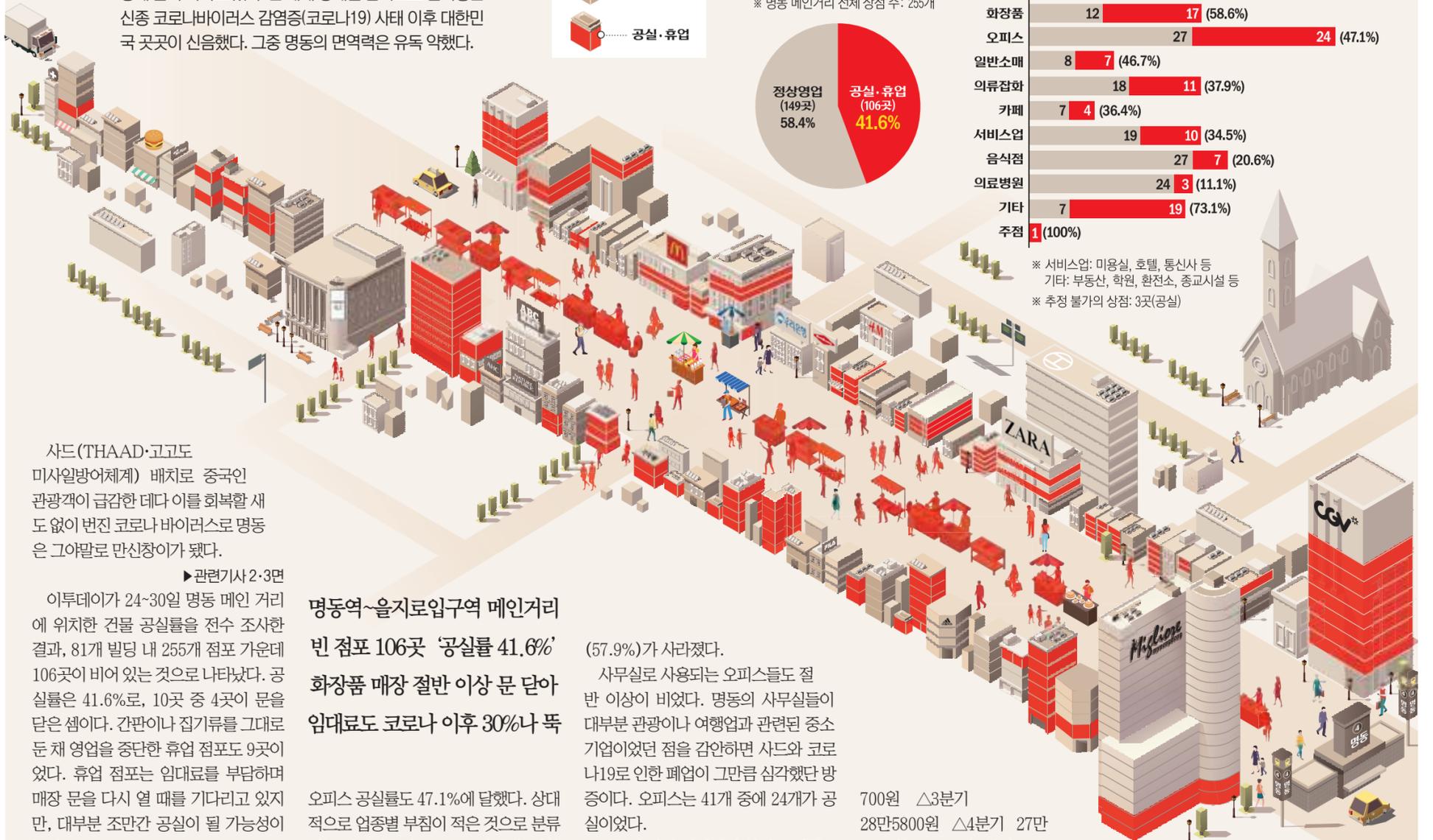
명동 메인거리 상점 공실·휴업률 (8월 24~30일 조사)
* 명동 메인거리 전체 상점 수: 255개



업종별 공실·휴업률 (단위: %)

업종	정상영업	공실·휴업(비율)
화장품	12	17 (58.6%)
오피스	27	24 (47.1%)
일반소매	8	7 (46.7%)
의류잡화	18	11 (37.9%)
카페	7	4 (36.4%)
서비스업	19	10 (34.5%)
음식점	27	7 (20.6%)
의료병원	24	3 (11.1%)
기타	7	19 (73.1%)
주점	1	100%

* 서비스업: 미용실, 호텔, 통신회사 등
기타: 부동산, 학원, 환전소, 종교시설 등
* 추정 불가의 상점: 3곳(공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이를 회복할 새도 없이 번진 코로나바이러스로 명동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 관련기사 2·3면

이투데이가 24~30일 명동 메인 거리에 위치한 건물 공실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개 빌딩 내 255개 점포 가운데 106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은 41.6%로,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간판이나 집기류를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중단한 휴업 점포도 9곳이었다. 휴업 점포는 임대료를 부담하며 매장 문을 다시 열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 조만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명동역 4번 출구부터 을지로 입구역(명동역~을지로입구역, 564m)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명동의 메인거리는 한낮임에도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해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명동 점포 가운데 화장품 매장의 폐업이 특히 많았다. 명동 전체 화장품 매장의 절반 이상인 58.6%가 문을 닫았다.

명동역~을지로입구역 메인거리 빈 점포 106곳 '공실률 41.6%'
화장품 매장 절반 이상 문 닫아 임대료도 코로나 이후 30%나 폭

오피스 공실률도 47.1%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업종별 부침이 적은 것으로 분류되는 커피전문점도 36.4%가 문을 닫았다. 환전소와 부동산, 학원 등 기타 점포들도 10곳 중 6곳의 불이 꺼졌다.

건물 전체가 공실이 된 사례도 많았다. 명동거리의 건물 81개 중 44개는 단일브랜드가 건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는 일명 '통건물'인데, 이 중 17개(38.6%)가 공실이었다. 화장품 매장은 19개가 통건물을 사용했지만, 11개

(57.9%)가 사라졌다.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들도 절반 이상이 비었다. 명동의 사무실들이 대부분 관광이나 여행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드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그만큼 심각했던 방증이다. 오피스는 41개 중에 24개가 공실이었다.

명동의 불이 꺼지면서 임대료 거품도 꺼졌다. 빈 점포와 오피스가 넘쳐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명동 상권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기준 1㎡당 임대료는 20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비 30%가량 줄었다. 명동 상가 임대료는 △2020년 2분기 29만

700원 △3분기 28만5800원 △4분기 27만 1700원 △2021년 1분기 22만 5000원 등 코로나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했다.

때마침 비가 내리던 명동 거리는 명동의 현재를 대변하는 듯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는 과거의 영광 대신 방치된 상가가 흉터처럼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제 명동(明洞)엔 명(明) 대신 암(暗)만 남았다.

특별취재팀
유현희 기자 yhh1209@·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이대삼 수습기자 citizen@·박민규 수습기자 pmk8989@·박민웅 수습기자 pmw7001@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신미영 기자 win8226@

복지·SOC·청년 예산 '역대 최대' ... "사실상 선거용"

2023년 로보택시 달린다 (아이오닉5)

2022년 604조 슈퍼예산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총지출 중 양극화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선거용'에 가깝다.

▶ 관련기사 4·5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84.9%다. 수입 증가를 웃도는 지출 증가에 내년 국가채무

내년 나랏빚 1000兆 돌파 전망... 국가채무비율도 50% 넘어
정권 말 예산임에도 지출 크게 늘려 "대선 겨냥한 선심 예산"

는 1063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서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정망 보장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5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24조9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재방재정 확충과 함께 보건, 복

지, 고용 등 복지예산(216조7000억 원)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27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 정권 말 편성·심의 시기가 대통령 선거 일정과 겹쳐 예산안 편성에 해당 정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선출돼

내년 1분기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 예산안 편성·심의와 대선 간 시차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선거용' 성격을 띠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당·청의 입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과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층(15~29세)의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지원 예산은 23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3000억 원 증액됐는데, 무이자 월세대출 등이 신규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용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023년 미국 도로를 달린다. ▶ 관련기사 12면

현대차그룹은 모셔널(Motional)과 함께 아이오닉 5를 바탕으로 개발한 로보택시를 31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모셔널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애티브(Aptiv)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으로 개발 중이다.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한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2023년 미국에서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 주는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에 투입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쇼핑 1번지’ 명성 옛말...인적 끊기고 한 집 건너 빈 가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명동의 불이 꺼졌다. 한 시민은 명동을 ‘유령도시’라고 표현했다. 이를 보여주듯 화장품, 잡화점, 식당 등 빈 점포들이 즐비하다.

명동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명동에만 점포를 3개로 늘려 운영해왔다. 관광객들이 줄어 서는 매장이었던 A 씨의 점포는 한때 하루 매출 16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A 씨 가게의 매출은 6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점심 시간대에도 25개 테이블 중 절반도 채워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19 발생 두 달 전 점포 임대 계약을 맺었다. 역대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지만 권리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루 매출 10만원에 불과한 B 씨의 점포에는 아르바이트생 대신 조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12월 재계약에 맞춰 매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C 씨는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을 5시간 줄여 낮 12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C 씨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옷을 사는 주기가 길어진 데다 외국인 관광객마저 사라지며 매출이 급감했다고 토로한다. 그의 점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임대료 4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적자여서 월세조차 제대로 내기 힘들다.

한때 한류 타고 외국인 관광객 북적 외인 끊기자 매출 푹, 곳곳 임대 표시

“요즘 누가 명동 가나요?”

명동에 언제 가봤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돌아오는 답변이다. 명동은 내국인들이 사라진 대신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로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 왔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상권을 떠받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

취를 감추자 수익 원대에 달하던 명동의 권리금도 사라졌다.

외국인 대신 거리를 채워야 할 내국인들은 명동을 외면했다. 흥대와 이태원이 내·외국인이 동시에 북적이는 상권으로 변모하는 사이 명동은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내국인들을 유치할 만한 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 명동의 공실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코로나 확산에 화장품 로드숍 큰 타격 메인거리 점포 29곳 중 17곳 문 닫아

◇출어든 유동인구에 점포는 떠나고...잃어버린 2년 = 명동 거리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거리에 나와 샘플과 전단지 나눠 주던 직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매장을 방문하면 영어로, 혹은 중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넨던 직원들 대신 손님이 사라진 점포를 지키는 직원은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 손님을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리기 일쑤다. 매장 문이 열렸지만 직원이 온데간데 없는 점포도 있다. 문을 연 가게 앞 가판대 위 물건에는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먼지가 수북하다.

명동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화장품 로드숍이다. 이투데이가 전수조사한 명동 메인 거리 점포 중 화장품 로드숍 29개 가운데 17개가 문을 닫았다.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 상태다. 명동의 대표 업종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점포의 과반을 차지했던 화장품 로드숍은 명동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명동 메인 거리에 통째로 빈 상태로 방치된 2~5층 규모 화장품점 건물이 늘면서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임대 문의’를 알리는 전단이나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날린다.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상인 D 씨는 “명동 상권이 살려면 메인거리에 있는 단독 건물(일명 통건물)에 점포가 들어와야 하는데 입점하는 브랜드가 없다”며 “기본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단독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이상의 매출을 낼 만한 업종도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화장품 로드숍 직원 E 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중국 한한령(限韓令)이 아니 해도 지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다”며 “메르스 때에는 첫 두 달간만 손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2년 가까이 손님이 없으니 개인이 하는 가맹점은 임대료와 매출 감소에 진작 자리를 떴고 그나마 버티던 직영점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줄 서던 맛집, 직장인들 점심 때만 방문 무권리금 점포 나와도 새 주인 못 찾아

◇영업시간은 단축·상가권리금도 사라져 = 빈 점포가 넘쳐나면서 명동은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만 잠깐 찾는 상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매장은 거의 없다.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닫는 것이 상인들에게는 그나마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식당들은 점심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늦게 문을 열지만 의류점이나 화장품 매장은 대부분 점심 무렵에 매장을 오픈한다.

실제로 명동을 찾은 정오 무렵 닫힌 셔터를 여는 매장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커피전문점들도 예외는 아니다. 스타벅스 명동길점은 코로나 이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했지만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운영 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단축했다.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7개 중 가장 중심에 있는 5곳은 영업시간을 현재 6시 또는 7시로 단축한 상태다.

명동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20년째 명동에 근무 중인데 자주 가던 식당을 찾았다가 문을 닫았던 경험이 많아 최근에는 정상 영업하는지 먼저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한다”며 “일부 식당은 평일에 휴무를 하는 곳까지 있다”고 전했다.

상인들의 명동 탈출도 쉽지 않다. 계약기간까지 버티야 보증금이라도 챙겨 나올 수 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며 문을 닫거나 하는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명동 L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예전엔 명동은 물건을 내놓으면 금방 팔릴 정도로 회전율이 빨랐지만, 지금은 작년에 내놓은 물건도 팔리지 않는다”며 “메인 거리 1층 매물들의 권리금은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호가했지만 요새는 권리금 없이 내놓은 물건들도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동에서 권리금은 거의 지취를 감춘 상태다. 임대료도 크게 낮아졌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상인들이 입점을 꺼려서다. 플래그십스토어들이 선호하는 단독건물들은 입점하려는 브랜드가 없어 텅 비어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단독건물은 코로나19 이전 월세만 최고 2억 원에 육박했다.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명동10길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의류, 화장품 판매점이나 식당의 경우 실평수 20평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이었다”며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잘 된 매장이 2000만~3000만 원대 권리금을 제시하지만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니 권리금까지 내고 입점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글·사진/특별취재팀

경제·문화·예술 중심에서 외국인 찾는 명소로

명동 상권 100년의 역사

한국의 문화와 쇼핑 1번지로 명성을 누려 온 명동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 시절이던 1920년대 모던보이와 신여성들이 명동의 상징이었다면 6·25 전쟁 이후엔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화려한 부피그들이 명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70년대 이후엔 대형 백화점, 호텔, 금융기관 본사 등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경제의 중심지이자, 문인들의 다방, 통기타 가수들의 라이브카페가 모인 문화·예술의 무대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명동은 종로와 더불어 서울의 근현대사를 대표해 온 지역이었다.

1980년대까지 주름 잡던 명동 상권은 서울에 부도심이 개발되면서 금융사는 여의도로, 쇼핑시설은 압구정 등 강남으로 이전해 가고, 1990년대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패션 업체들이 강남과 압구정 등 신흥 상권으로 매장을 대거 옮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서 부활의 날개를 펼치게 됐다. 한류의 씨앗에 힘입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한 덕

분에 1990년~2000년대까지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퉈 플래그십스토어를 여는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았다. 적어도 2010년쯤까지는 ‘명동(明洞)’이라는 지명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해 왔다.

2010년대 들어 명동은 중국인, 동남아 관광객까지 가세하면서 내국인 대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또한번 탈바꿈했다. 대한민국에서 상업용 공시지가 상위 10위 중 8~9개가 몰려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월 매출 1억 원이 넘는 점포들이 즐비했다.

명동의 기나긴 화려함 끝에 추락의 속도는 어느 지역보다 기팔랐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코로나10 바이러스까지 덮친 명동은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유령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화장품·의류 쇼핑에만 치중, 상권 체질개선 급선무”

명동 상권 부활 가능한가

젊은층 즐길 만한 문화 없어
임대로 낮춰 업종 다양화 해야
강남·홍대 등 벤치마킹 필요

명동의 부활은 가능할까.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복잡한 분위기나 외국인 위주의 프로모션 등이 넘치면서 내국인들에게 외면받아왔다. 오랜 기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들여진 상인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상권'이라는 내국인들의 편견이 명동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251만9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750만 3000명에 비해 85.6% 감소했다. 서울관광재단의 '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명동은 서울 방문객 303만여 명 중 85%가 다녀가는 관광 명소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곧 명동의 유통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국인을 끌어들이 수 있는 행사와 즐길 거리를 갖춰야 명동이 살아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중구청이 지난해 11월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해 '명동 빛 축제'를 열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중구청과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명동 빛 축제'를 열고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침체된 명동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방문객 유도를 위해선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지만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든 만큼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동의 부활을 위해 상권 내 업종의 변화, 체질 개선, 임대료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명동은 구도심이라는 역사적 성격이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위한 상업시설도 확대됐다"며 "쇼핑을 하는 상업 지역적 성격을 줄이고 외국인 위주가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명동 상권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 교수는 "소비자 유입을 위해 타깃층에 내국인도 포함해 새로운 콘셉트의 명동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남, 홍대 상권처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많이 찾는 이유를 살피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추는 것은 'K트렌드'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현시점에 내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동 부활 프로젝트를 서울시 차원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명동은 시청, 광화문, 남대문과 이어지는 초대형 상권의 중심으로 중구청은 물론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도시와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매력과 특색이 부족한 명동 상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 대표는 "화장품, 의류 등 판매 위주의 상권이 들어서면서 상징성이 컸던 명동의 매력이나 특색이 없어졌다"면서 "자연스레 젊은 층이 즐길 만한 점포나 문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명동역 인근 L사 화장품 매장에서 4년

째 일하는 20대 A 씨는 "명동은 또래랑 놀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일할 때 아니고서는 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던 B 씨도 "저녁에는 명동을 올 바에야 차라리 을지로나 북창동을 간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젊은 층을 끌 만한 개성 있는 점포가 들어와야 명동만의 특색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만 상권이 구성되는 한 코로나가 끝나도 관광객 이외에는 유입도를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춰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업종에 편중된 점이 명동 상권의 한계로 지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비상사태에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지만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재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과거의 영광 무색한 '백년가게'

한때 권리금 10억 노포거리 한산
매출 급감 못 버티고 잇따라 폐점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 필요"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단골손님까지 있을 정도로 붐볐지만, 지금은 저녁에 한두 명만 와도 감지덕지다."

30일 오후 다시 찾은 명동. '오래된 가게'들이 즐비한 노포(老舖) 거리는 한산했다. 몇몇 가게들은 문을 아예 닫은 상태였다.

'금강 보글보글 섞어찌개' 가게는 녹슨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1987년 문을 연 이 가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가게'로 선정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11월 영업을 중단한 후 아직까지 다시 문을 열지 못한 가게 앞 골목길은 인근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 이 골목에는 3층짜리 건물이 7~8개 있는데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195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전주중앙회관 명동점'은 역사의 뒤안길로 아예 사라졌다. 이곳 역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유서가 깊은 식당이었다. '명동'이라는 장소와 '비빔밥'이라는 메뉴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뜸해지면서 영업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7월 폐업했다. 이날 찾은 전주중앙회관 명동점은 폐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각종 메뉴가 빼곡히 쓰여진 현수막과 폐자재들이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나마 영업 중인 가게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동7길 인근에서 16년째 순두부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에게 '요즘 장사가 어떤지'를 물으니 한숨을 내쉬며 손사래를 쳤다. 가게 내부에는 NHK, 아사히 등 일본 방송국의 맛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사진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가게에는 식사하는 손님은 단 두 명이었다. A 씨는 "코로나 이전엔 일본인 단골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백년가게'로 선정됐던 식당 '금강 보글보글 섞어찌개'가 폐업했다. 출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주변 공사장 인부나 직장인들만 온다"며 "400만 원의 임대료와 일하는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사실 손에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 옆에 대를 이어 64년째 운영 중인 '명동할머니국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벽 6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해 밤 10시에 문을 닫던 가게는 이제 저녁 7시만 문을 닫는다. 코로나 이전에는 8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반짝' 바쁜 점심시간까지만 5명이 일하고 손님이 빠지면 둘이서 가게를 지킨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대비 90%가량 줄었다.

이 국수집을 운영하는 B 씨는 "한때는 권리금 10억 원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잘나가던 식당이었다"고 쓸쓸해하면서 "올해는 끝났는지 생각하며 2년째 버티고 있다. 주변에 함께 오래 장사해 온 노포 중엔 횡집 하나만 남았다"며 명동 내 오래된 가게들의 실정을 토로했다.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텼다는 안도와 함께 옆 점포가 문 닫는 것을 망연자실 지켜만 봐야 하는 이곳 상인들이 바라는 건 어딜 가도 골목골목 사람이 가득했던 명동의 옛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A 씨는 "지금 필요한 건 단발적인 금액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호소했다. B 씨도 "지금껏 버티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명동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특별취재팀

2004년부터 함께한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260만 굿앤굿 어린이와 함께 자랍니다 함께 지원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 2021년 2월 기준 어린이보험 보유계약 2,644,990건 (2004~2021년 가입)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충대금용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외의 면책사항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632호(2021.06.07)

文정부서는 빛만 408兆... '재정준칙' 차기정부로 떠넘겨

나라 빛 부담 다음정부로

5년 동안 평균 8% 넘는 재정 확장 "코로나 대응" 재정적자도 60조 2023년 예산부터 사실상 긴축 재정준칙 시물레이션 현실성 없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적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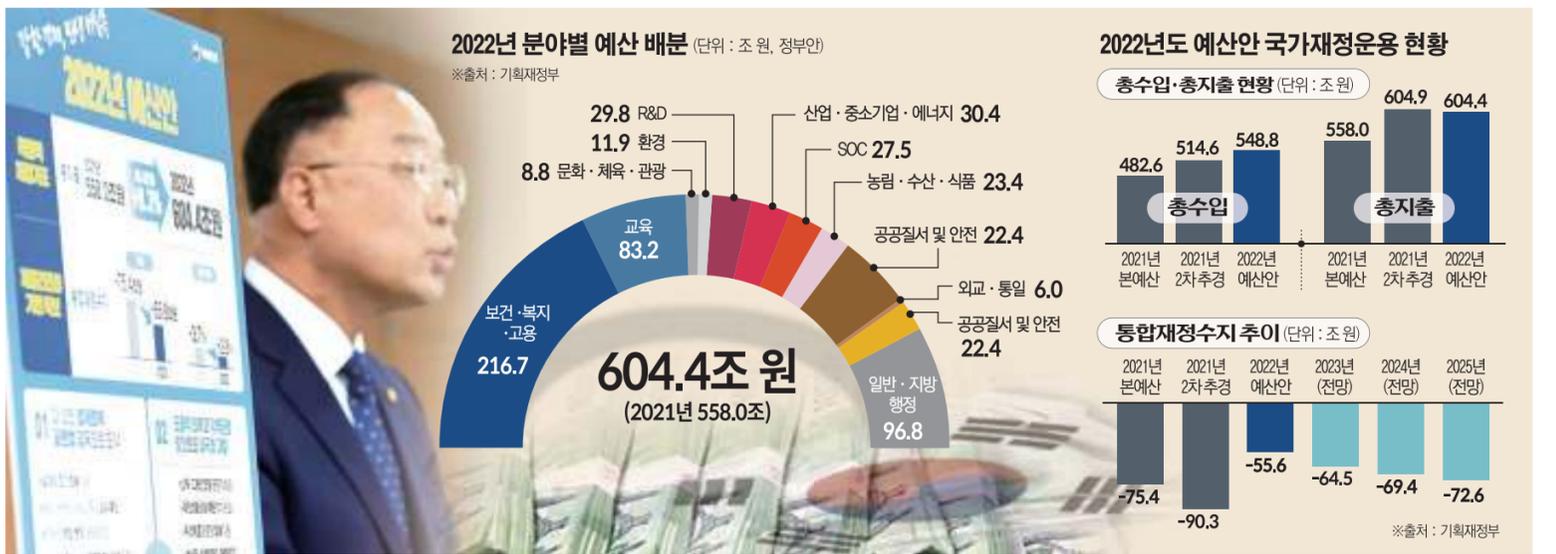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0%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긴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며 "그것을 감안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낮춰 가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을 줄인 이유는 재정준칙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이거나 재정수지가 GDP 대비 -3.0% 이내여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총지출 증가율이 계속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72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0%,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58.8%를 기록한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딱 맞춘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5.0%, 4.3%, 4.2%라고 하는 수준은 뒤로 갈수록 경상성장률 수준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레도 경



상성장률 수준 이상은 유지하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시물레이션을 해 보니까 2025년도의 재정준칙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준칙 기준에는 맞을지라도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해 편성하는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를 제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첫 예산안인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7.1%로 9년 만에 최대로 잡은 바 있다.

올해 1월 말 중기사업계획서상 부처 요구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부처들은 내년 예산안을 621조4000억 원, 2023년 654조9000억 원, 2024년 687조2000억 원, 2025년 723조5000억 원으로 요구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첫해는 7.1%로 총지출을 늘리고 이후부터는 연평균 5.7%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9년 금융위기(10.6%) 이후 최대인 9.7% 늘렸다"며 "차기 정부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확장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탄소중립 강조하더니 예산은 고작 11.9조

에너지전환 턱없이 부족 온실가스 감축 상향도 앞뒤 기업·국민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비롯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산업구조 개편에는 수천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12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예산은 총 11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7조3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이 늘었다.

이 외에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은 2조7000억 원 규모로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적극적인 증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과정을 생각하면 정부의 예산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NDC 상향까지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비용 산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유로, 한화 약 1376조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기도 했다.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을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전환만 해도 필요한 비용은 100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시니어전문 추산에 따르면 탈원전을 계속할 경우 2050년까지 설비투자가 약 1400조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계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산업연구원은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의 전환비용만 최소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전체로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면 비용은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목표를 우선 설정하다 보니 다양한 변수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국가장기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총액 비용만을 두고 어젠다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향후 어떤 환경 및 에너지 기술이 탄소제로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비용 산정을 통해 단기적인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코로나 손실보상 소상공인 3.9조 반값 등록금 등 청년층에 23.5조

금융절벽 상인 1.4조 긴급자금 장병 전역적금 최대 1000만원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반값 등록금 등 청년 대책에 2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31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000억 원에서 내년 3조9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000억 원이다. 올해 10-12월 손실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1조4000억 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되고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 명에게 7000억 원의 용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 원(금리 연 1.9%)이다. 경영위기 업종에는 1곳당 2000만 원, 총 238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

다. 소상공인의 폐업·재기를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 원, 창업 지원 예산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23조5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고 월 20만 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반값 등록금은 중산층까지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 5-8구간 지원 금액을 최대 390만 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저축액에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주고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 공제 혜택을 도입한다. 장병내일준비금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중·고·고등학생 31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학습용 특별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역대 최대' 31.3조 투입 일자리 211만개 만든다

소·부·장 강화에 4.5조 편성 1조 규모 'K 백신 펀드' 조성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해 211만 개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경쟁력을 확보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직접 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각각 84만 4000개, 2만7000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여성에게 대해서는 자활근로, 새일센터 인턴 등 총 7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일자리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10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취약청년(14만 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장려금(5000억 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6000명 지원, 분기당 30만 원)도 신설한다. 전직 훈련 등 산업구조 개편

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 명)도 강화한다.

소득·고용안전망의 중층적 보강을 위해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263만 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도 실시된다.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등 전 산업의 혁신과 K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5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혁신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 반도체 기술개발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 부품업계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투자자금(200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대(對)일본 100대·미래선도 65개 소부장 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개발에 대한 예산도 2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2022-2026년 총 2조2000억 원(연구개발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단기간 내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K 글로벌 백신 펀드(2022-2023년)'를 조성하고, 백신 원부자재·생산공정 연구개발(68억 원) 등을 지원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전문가 “대선 앞두고 가계빚 줄여 나랏빚 늘리나”

재정 확대 우려 목소리

소득 제자리인데 세금 계속 늘어
민간 주도 성장경제 장기 악영향
“재정관리 차기정부로 넘겨” 지적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도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백신과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대체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에 규모만 추가하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8%대 증가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사업들을 보면 기존 사업에 재정 규모를 추가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결국은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안도결(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에 없고, 민간 부문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기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관리의 몫을 다음 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기용 교수는 “주식·코인 등에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시작하면 선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부 2023년으로 넘겨버렸다”며 “재정 관리를 다음 정부에 넘긴 것도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본래 선거가 있기 전에는 집권 득표에 유리하도록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오히려 금리를 높였다”며 “정치권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경기 부양이나 선거 득표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에는 58.8%에 달한다. 지난 2020-2024년 계획 당시의 전망보다는 2.2%포인트(P) 축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올해부터 5년간 11.5%P 증가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증가율은 높다.

김정식 교수는 “코로나19 변수를 제외 하더라도 고령화라든지, 실업률이 높아진 다든지,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예상보다는 국가채무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저성장 기조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2022년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단위: 조 원, 총 250조 원 수준) ※ 출처: 기획재정부

	신 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16.9조원) + 고용(1.9) + 생활(41.3) + 취약계층(23.3)	83.4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5.5) + 자산형성(1.9) + 주거(6.3) + 교육·복지·문화(9.7)	23.5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안전망(1.9) + 금융(1.4) + 구조지원(0.6) + 지역상권(0.6)	4.5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1.7) + 첨단화(1.5) + 스마트 시티(0.2)	3.4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 뉴딜(9.3) + 그린 뉴딜(13.3) + 휴먼 뉴딜(11.1)	33.7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뉴딜(3.6) + 미래주력산업(2.8)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	6.2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인재 교육 + 직업훈련	2.0
	탄소중립경제 선도 경제구조 저탄소화(8.3) + 저탄소 생태계(0.8) + 공정한 전환(0.5) + 제도적 기반(2.3)	11.9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재정분권·재정보강 등(24.7) + 균형발전 인프라(12.1) + 지역균형뉴딜(13.1) + 지방소멸대응(2.7)	52.9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자연재해(5.3) + 생명보호(14.1) + 생활환경(2.4)	21.8
	가족 행복·육아 친화 5+3 지원 친 가족 5대 패키지(4.1) + 아동수당(2.4)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6.6
	장병 시기전작 토달 패키지 병금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귀준비금 + 주거지원	4.7

※ 중점 포함: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제외

‘실버’ 공연팀에 회당 150만원...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

이색사업 20선

저소득 청년 어학·해외연수 지원
중소 재직 중장년 재취업 컨설팅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년의 외국기관 진출 지원, 중장년층의 새 출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색사업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색사업 20선도 발표했다.

우선 우리 청년의 외국 유수기관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20선에 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박물관 인턴) 파견 사업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제교류 실무 중심 어학교육 △국제교류 활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심화 프로그램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20선에 넣었다. SSIFY, Hy-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 경험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병행하는 민관협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장년의 새 출발 프로그램도 20선에 뽑혔다.

중·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경력설계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300만~500만 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iby@

내년 전국민 접종 위해 1.7억 회분 백신 확보

정부가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년 총 1억7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외중진행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 중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5조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확보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8000만 회분,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이다. 올해 내년도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8000만 회분으로, 모두 합치면 총 1억7000만 회분이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산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등 치료·공공 목적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전 임상·임상시험 지원도 계속된다.

병상 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단계를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의 병상·장비를 늘린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청소년 한부모 1000명 자립지원...노후 수도관 교체

현장사업 20선

다문화 자녀 입시·진로 상담
EBS 등 교육 바우처 10만원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 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출산) → 양육(돌봄) → 검정고시 등 → 직업훈련 → 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수령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도입해 대상 기준이 2인 기준 소득액이 공제 전 160만5801원에서 공제 후 229만4001원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20선에 선정됐다. 미취학 아동 예컨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취학준비

학습을 지도해 주며 취학 후엔 연 4회 입시·취업상담사가 각 지역센터로 방문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해 준다. 각 지역 센터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왕따, 가정불화 등 심리적 우울감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도 있다. 중위소득 45~60% 구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선비용 중 자부담을 5%(세대당 약 12만5000원)로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국토부 우선유지급여 사업

으로 지원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도 20선에 선정됐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아울러 현장공감예산 20선 중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예산은 77.9% 올린 916억 원, 중증 장애아 돌봄 예산도 124.1% 증액한 484억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iby@

삼성의 미래 통찰력, 글로벌 폴더블폰 유행 선구자로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연구 몰두
3세대 휴대전화 트렌드 선점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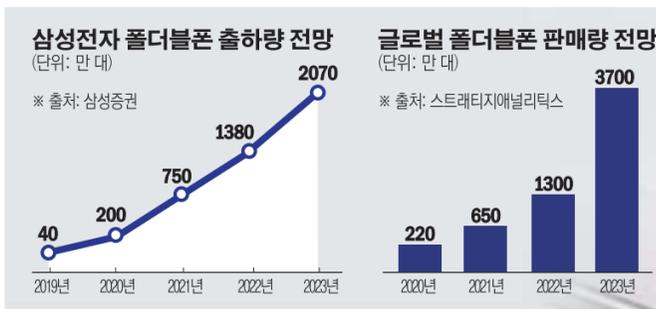
신제품 가격 낮추고 성능 높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가속

“폴더블 폰은 디바이스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커 삼성전자가 꼭 하고 싶은 분야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던 고등진 사장(IM 부문 대표이사)은 2016년 ‘갤럭시 언팩’에서 폴더블 폰 출시 시기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3’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YOUM)’이라고 불리는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발표한 이후,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은 매년 커졌다. 다만 출시까지는 무려 6년이 더 걸렸다.

출시 이후에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9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서 스크린 결함이 발생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자를 접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삼성전자가 출시한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는 그야말로 흥행 돌풍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선 이미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S20의 사전 예약판매량을 넘겼고, 해외 시장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모바일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트렌드 세터(Trend setter)’에 등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렌드 세터는 ‘시대의

풍조나 유행 등을 조사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기업)’이란 뜻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모바일 분야에서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했지만,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라는 이미지를 벗진 못했다. 피쳐폰 시절에는 노키아가 절대 강자였고, 스마트폰 시대는 애플이 열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 시리즈로 없던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시대의 유행을 이끌어 가는 트렌드 세터로의 첫 걸음을 뒀다.

삼성이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폴더블 폰 연구개발에 나선 건 수십 년 앞을 내다본 ‘생존 전략’이다.

“창조적 발상이 결합된 상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는 기회 선점적 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꼭 할 일이라면 빨리 뛰어들어 기회를 선점하거나 최소한 기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故)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타이밍과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3분기 처음으로 애플과 노키아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후, 연간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패스트 팔로어’였지만 ‘퍼스트 무버(시장 선구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라인업에선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다.

겉으로 보기에 무선사업부를 포함한 IM 부문 실적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IM 부문 매출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밑돌았지만, 영업이익은 11조4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올 상반기 역시 7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매량이 늘어선데다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상징인 ‘갤럭시S’ 시리즈의 판매 부진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출시된 갤럭시S21 시리즈의 6개월간 판매량은 1350만대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1700만 대가량 팔린 갤럭시S20보다 20%가 적다.

삼성이 트렌드를 선도한 갤럭시Z 시리즈가 중요한 이유다. 피쳐폰 → 스마트폰 → 폴더블 폰으로 이어지는 3세대 휴대전화의 트렌드를 선점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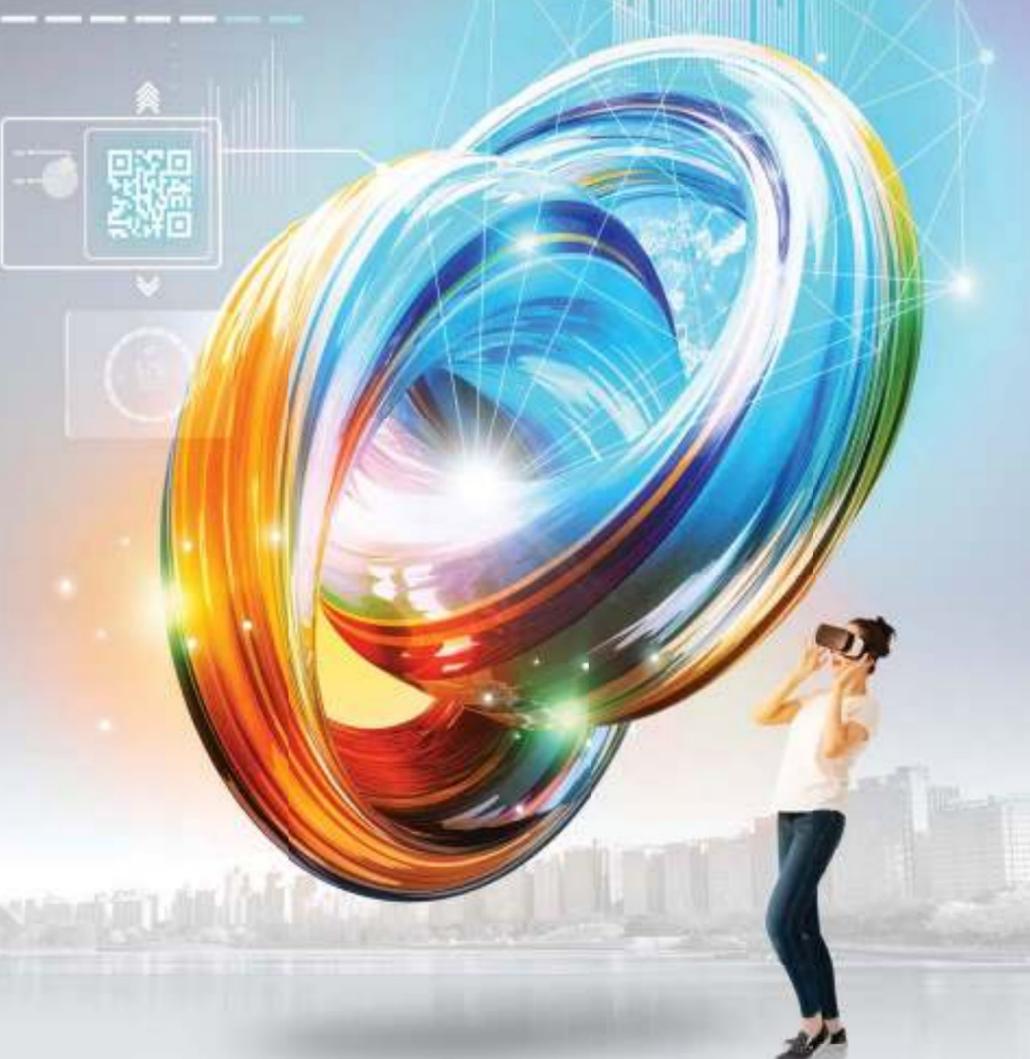
박진석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갤럭시Z 모델은 디자인 및 성능이 개선되면서도 가격은 하락했다”며 “특히 새로운 갤럭시Z 폴드3는 S펜을 지원하고 있어 노트 사용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당신의 능력개발에 디지털 혁신을 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폴더블폰 대중화 신호탄 쏜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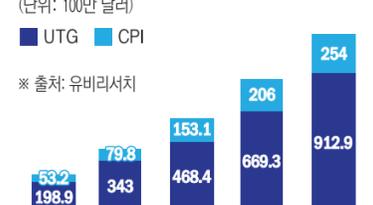
“애니콜 신화처럼 초격차 노려야”

‘갤Z 시리즈’ 향후 과제는

앱 지원 등 다양한 생태계 구현
후발 주자와 기술 차별화 관건

내년부터 폴더블폰 각축전 전망
부품·소재 업계, 생산 확대 분주

폴더블폰용 커버 윈도우 시장 전망



역대 가장 튼튼한 ‘아머 알루미늄’을 적용했다. 또 패널 구조 최적화·신규 보호필름으로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강화하며, 초기 제품과의 차별화를 구현했다.

폴더블폰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계 구현도 과제다. 삼성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업체와 협업을 확대하며 폴더블폰 지원 앱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갤럭시Z 폴드3는 폴더블폰 최초 ‘S펜’ 지원으로 멀티태스킹 경험을 구현하며, 대화면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차기 폴더블폰에서도 과거 ‘애니콜 신화’처럼 삼성만의 품질과 기술 강점을 극대화해 후발주자와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한편, 접었을 때의 ‘간결함’, 펼쳤을 때의 ‘대화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앱 생태계 확대에 힘을 쏟아야 안정적인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부품·소재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폴더블폰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능력이 현재 연 1700만 대에서 연 25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 시장이 내년 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 애플의 가세로 더 확대될 경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 규모가 104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의 미래 모바일 사업 핵심인 폴더블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폴더블폰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갤럭시Z 시리즈는 17~23일 국내 사전예약 기간 92만 대가 판매됐다. 이는 갤럭시노트20 대비 약 1.3배, 갤럭시S21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돌풍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사전예약 물량이 2세대 폴더블폰의 올 1~7월 판매량을 넘어섰고, 중국에서도 사전예약 대기지만 1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인도에서는 사전 예약 첫날에만 갤럭시노트20 대비 2.7배 많은 예약 물량을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들도 폴더블폰 판매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량을 올해 650만 대, 내년 1300만 대로 예상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작년 말에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을 280만 대로 예상했다가 이달에 900만 대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삼성은 전체 시장의 9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폴더블폰 시장은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폴더블폰 각축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내년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애플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안정성 구현이 핵심이다. 삼성은 이번 폴더블폰에 IPX8 등급 방수를 지원하고, 스마트폰 알루미늄 소재 중



지구도 연료도 충전되는 세상

전기차배터리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결국 지구를 충전하는 일이 될 테니까

SK가 ESG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美, 상처뿐인 '20년 전쟁' 종지부... 아프간 철군 완료

명분·실리 없는 전쟁서 손뎌다 바이든, 시한보다 앞당겨 철수 민간·군인 잇단 희생에 비판 직면 탈레반 추가테러 위협도 커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 육군 82공수사단장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카불/로이터연하뉴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며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20년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전쟁 끝에 가져갈 수 있었던 '승리의 기쁨'은 전혀 없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 주둔이 끝났다"면서 "지난 17일간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들은 용기와 전문성, 의지를 갖고 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아프간 전쟁 공식 종료를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한다.

이보다 앞서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군의 C-17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시간으로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애초 미국 정부가 스스로 대피 시한으로 정한 31일보다 하루 앞당겨 철수를 완료한 것이다. 마지막 미군 수송기에는 카불 현지에서 미국의 대피작전을 총괄했던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 육군 82공수사단장과 로스 윌슨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대리가 탑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피작전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총 12만 3000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

아프간전은 2001년 당시 아프간 정권을 쥐고 있던 탈레반이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에 대한 인도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9·

11테러 당시 아프간전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전쟁 개시를 지지할 정도였다. 미국은 침공 직후 탈레반을 몰아내고 나서 친미 성향 아프간 정부를 세웠고, 약 10년 만인 2011년 5월에는 빈라덴을 사살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전쟁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는 빈라덴 사살 정도였고, 아프간에서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은 결국 실패했다. 미국의 의도와 달리 아프간 정부는 무능과 부정부패로 일관돼 현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했고, 2015년 무렵부터는 탈레반이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며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최대 3년 정도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아프간전은 '잊힌 전쟁'이 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철군을 계획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계속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전쟁에서 손 뎌는 의지를 보이며 철군을 강

행, 아프간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쟁의 끝은 공허했고 잔인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아프간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민간인과 반군 등을 포함해 약 24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군과 동맹국군대 희생자 수는 3586명에 이른다. 브라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프간전쟁 및 재건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1조 달러(약 1159조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2만 명 이상의 재향군인 연금과 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쟁 비용은 이미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년간 4명의 대통령이 거쳐 간 전쟁에서 탈레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CNN은 "천문학적인 자금과 2000명이 넘는 미군을 희생한 전쟁은 20년 동안 부모 세대는 물론 아이도 죽었다"고 혹평했다.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정권을 장악해 미군이 쫓기듯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17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과 미군 희생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철군 작전과 관련해 아프간에 참전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동맹국의 불만, 미군 철수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 등으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작된 전쟁이었으나, 결국 아프간이 테러조직의 거점으로 재부상해 미국은 물론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 CBS뉴스와 유고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지만, 70%는 바이든 대통령의 '출구전략'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탈레반 "우리가 이겼다" 미군 떠난 하늘에 축포

민생·국제협력 등 난제 산적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안팎으로 산적한 난제로 인해 탈레반의 바람대로 '정상국가'로의 전진은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힘을 실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31일(현지시간) 자정을 1분 앞두고 이륙하자마자 탈레반은 공항에서 발포하며 자축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밝혔다. 카불공항에 배치됐던 탈레반 대원 헤마드 세르자드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2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미군 철군 완료와 함께 아프간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계 최강 미군이 쫓기듯 철수하면서 탈레반의 기세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은 오랜 옛날부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나라로 손꼽혀왔다. 과거 원나라부터 무굴 제국, 영국, 소련까지 당대를 호령한 세계 초강대국이 아프간에서만 고

전을 면치 못했다. 국토의 절반이 해발 1000m 이상인 산악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곳곳에 있는 토착 세력의 거센 저항 등 때문이었다.

탈레반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모든 보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유화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는 이날 카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며 "그들 모두와의 좋은 외교 관계를 환영한다"고 역설했다.

탈레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자신들의 '돈줄'이었던 마약 주류인 양귀비 재배 금지령까지 내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탈레반은 2000년에도 국제사회 인정을 노리며 양귀비 재배를 금지한 적이 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탈레반의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벌써 고조되고 있다. 1996년~2001년 탈레반 통치 시절의 경험 대신 20년간 자유를 누렸던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이끌어야 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아프가니스탄 전쟁 주요 일지

2001	9월 11일	9·11 테러 발생
	10월 7일	미·영 연합군, 아프간 공습
	11월 13일	탈레반, 수도 카불서 퇴각
2011	5월 2일	미군 특수부대 파키스탄서 오사마 빈라덴 사살
2014	5월 27일	오바마 전 대통령 연내 아프간 전쟁 공식 종료 계획 발표
2015	10월 15일	오바마 임기 내 아프간 주둔 미군 완전 철수 계획 백지화
2016	7월 7일	오바마, 임기 종료까지 아프간 미군 8400명 전투 계획 발표
2019	9월 9일	트럼프, 탈레반과 평화협상 '시망' 선고
2020	2월 29일	트럼프 정부, 탈레반과 도하에서 평화협상의 타결

2021	4월 14일	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 철군 완료 계획 발표
	7월 6일	미군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 이후 탈레반 지방 주도 도시 함락 시작
	8월 15일	탈레반, 수도 카불 등 아프간 전역 장악
	8월 26일	카불공항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 발생 13명 미군 포함 170여명 사망
	8월 30일	마지막 미군기 이륙, 바이든 대통령 아프간전 공식 종료 선언

통계로 본 아프간 20년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규모 추이



고급인력 키우겠다면서 첨단산업 숨통 죄는 中

중정부 '5개년 고용플랜' 발표 IT·게임 등 규제강화 모순 빠져

중국 정부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가오가오 사무차장은 2025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고용 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30%까지 상승했지만, 다른 제조 강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청년 실업률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동부 해안 지역 사업체들은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6~24세 실업률은 16.2%로, 국가 평균인 5.1%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고용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데다

중국 도시 실업률과 16~24세 청년 실업률 추이



가, 최근 당국이 '공동 부유'를 이루기 위해 불평등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직업 교육을 통해 근로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술 등 여러 산업에서 근로자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뒤편에서 중국 정부는 고성장 첨단기술 산업을 흔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당국은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모바이크를

인수한 음식배달업체 메이탄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 교육, 부동산, 게임 등에 이어 공유경제에까지 규제 강화의 손길이 뻗친 셈이다.

이날 게임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책도 발표됐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고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일요일과 휴일에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단속 강화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열린 중앙전면 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공동 부유를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 촉진과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공동 부유 관점에서 대기업을 향한 반독점 규제 강화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을 시사한 셈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美 재무부 "국가안보 위협된다" '매그나칩반도체' 中 인수 제동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행보에 우리나라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계 사모펀드로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그나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재무부가 27일 서한을 통해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그나칩반도체) 인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다음 단계를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그나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내려진다. 앞서 매그나칩은 지난달 초 SEC 공시에서 "CFIUS는 합병 검토가 늦어도 9월 13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탈'은 3월 14억 달러(약 1조 6200억 원)에 매그나칩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관련 국가 규제

당국이 심사를 진행해왔다.

디스플레이와 파워반도체 전문기업인 매그나칩은 생산과 연구 시설을 한국에 두고 있다.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됐고 미국 씨티그룹벤처캐피탈이 인수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돼 있다.

앞서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6월 와이즈로드캐피탈의 매그나칩반도체 인수를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이번 제동을 두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중국도 이 시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 전문매체 차이징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미 재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이미 6월 21일 이번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자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을 통과한 '미 혁신경쟁법'은 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19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국민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을 원한다

상의 1만명 설문, 36% 고용 1순위
10명 중 7명 대기업 '잘하고 있다'
경제기여·국위선양 긍정적 평가
코로나 시대 최우선은 경제 회복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가 바라는 기업'을 주제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7월 12일~8월 12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7%가 가장 바라는 기업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조사에 응한 10대부터 60

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은 기업 본연의 역할을 일 자리 창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풀이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 복지에 신경 쓰는 기업'(25.9%)을 꼽았으며,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기업'(18.0%),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16.0%),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4.0%)이 뒤를 이었다.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약 7명은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73.3%)' 중소기업은 10명 중 7명 가량이 '보통 이상'(73.9%)으로 평가했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40.2%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우수제품으로 국위선양에 기여'(33.8%), '일자리 창출에 기여'(23.1%)를 들었다. 반면 '사회공헌'이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해 기업의 사회공헌이 기업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업체 갑질 등 잘못된 거래 관행'(32.9%)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변법 경영권 승계, 분식

회계 등의 경영행태'(28.5%), '실적 중심, 야근, 산업재해 등 근로자 보호 미흡'(23.4%) 순이었다.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국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산업 발굴(3.44점)'과 '소비자 만족(3.27점)', '주주 이익 제고(3.01점)'는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성실한 납세(2.80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2.87점)', '근로자 복지(2.7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 우리 기업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평가에서는 '4차산업

및 디지털 경제 대응(3.50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활동(2.94점)' '환경친화경영(2.76점)' '소통과 배려의 기업문화(2.67점)' 순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대·중·소 상생경영(2.43점)'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34.4%)을 꼽았으며, 이어 '채용, 임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최우선'(31.2%), '친환경·사회적 책임 등 ESG 경영'(24.9%),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9.4%) 순이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의료진에 고개 숙인 총리 김부겸 총리가 31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둔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변수로

노조, 공공병원·의대 설립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맞물려 신규 확진환자 발생이 정체된 모습이다. 전반적인 방역지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 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 전(24일, 1509명)과 비교해선 137명 줄었다. 예방접종률이 오르면서 확진자 증가세도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1차 이상 접종률은 56.5%, 접종 완료율은 29.6%다. 1일부터 교육·보육종사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시행된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1주간(22~28일)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3%에 달한다. 대부분 국내감염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도 변수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의는 교착상태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졌으나, 각론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노조는 공공병원 신설 계획·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에 정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선행돼야 해 노·정 차원의 논의에선 합의 안 마련 및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파업 참여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과 선별진료소도 포함돼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기관 운영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 미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 환자들을(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5개월째 고용 늘었지만 숙박·음식업 6.4만명 감소

고용부 7월 사업체노동조사
보건·제조업 직원 늘어 양극화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사업체 종사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지만 업종별 고용 양극화는 심화됐다.

제조업과 공공행정 등은 수출 호조와 재정 일자리 등에 힘입어 종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6만 명 넘게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 7월 사업체노동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83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4000명(1.5%)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음에도 수출 호조 지속과 고용 부진이 나타난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종별 고용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7월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6만4000명 줄면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7월 감소 폭은 전 달(-5만1000명)보다 확대됐다.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대면 서비스업종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업(-1만3000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000명)도 종사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으로 공공행정(+4만7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5000명) 등의 종사자 수는 크게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1만9000명)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영향이 이르면 올해 8월이나 9월 고용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 중에서는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분기>

고령화 없었다면 '코로나 실업률' 0.2%p 높아졌다

한은 인구구조 변화 실업률 추정
향후 20년간 0.6%p 감소 예상

인구 고령화가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하면서 지난 20년보다 향후 20년간 실업률을 더 낮출 것인 전망이다. 반면, 50세 이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구조변화가 실업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부문별로

보면 인구 고령화는 0.5%포인트 낮췄다. 반면, 50세 이상과 여성 중심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0.1%포인트 높였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20년간 실업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하락폭보다 0.1%포인트 더 큰 것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추정했을 1분기 실업률은 4.6%였다. 이는 공식 실업률(4.4%)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반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1분기 실업률은 4.0%로 추정돼 공식 실업률(4.1%)보다 되레 0.1%포인트 낮았다. 이를 종합하면 금융위기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사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은 0.3%포인트에 달한 것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실제 자연실업률은 2012년 4분기 3.3%에서 올 1분기 3.9%를 기록 중이다.

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하방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공무원·공무직 임금 차별 없앤다

출장비·직장어린이집·호칭 등
혜택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내년 공공부문부터 동일업무·동일 임금 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포함)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임금·수당을 지위 여부에 따라 차별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

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동일 공공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공무직 간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도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비금전적 처우(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등), 호칭, 채용, 휴가·휴직,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출장비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을 할 수 없었던 공무직도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與, 여론 악화에 언론중재법 회군...野와 협의 27일 처리

원내대표 5번 만남 끝에 합의 의원·언론·전문가 8명 협의체 고의중과실 추정 등 수정 논의

여야는 31일 가짜뉴스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합의를 이룬 후 각 당 의원총회 주인을 거쳐 공식 발표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까스로 뜻을 모은 것이다.

합의안 핵심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이다. 이달 26일까지 활동하는 기구로 여야가 의원과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각 2명씩 총 8인으로 이뤄진다.

이달 27일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명시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거친 후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키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의견차가 커 협의체 논의가 잘 이뤄지기가 쉽지 않고, 합의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에 거절당한 수정안을 앞세울 계획도 있어서다.

수정안은 야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30조2항2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개정안의 골격은 바꾸지 않는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가짜뉴스

로 피해받은 걸 어떻게 구제할 지라는 법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중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과 지면으로 정정되는 것 등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자체가 독소'라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서 서명 자리에서 "언론이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다"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며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라며 "생선 살 발라낸다고 빼가 어디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수술실 CCTV 의무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무효화

쟁점 법안들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의 인 생명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협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큰 수술을 시행하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이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계입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시행도 전에 무효화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은 또 있다.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사·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중부세법 개정안, 군 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 국회의장이 1년 4개월 만에 정진석 의원으로 선출됐다. 김윤호 기자 uknow@

유승민 "경선룰 토씨 하나 고치지 마시라"

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조항' 윤석열·최재형 vs 유·홍준표 갈등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내용이 생기는 모양새다. 애초 최고위원회가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받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경선룰을 채택했지만,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선룰을 바꿀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 등이 해당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유승민·홍준표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했다.

유 후보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이미 확정된 경선룰은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정 위원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는 선관위가 최근 출범하면서 경선룰을 바꿀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정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기 전 유 후보를 만났다는 사실이다.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유 후보 캠프 측에서 다른 사람도 정 위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냈다.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역선택 논란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배경은 유 후보와 홍 후보의 상승세 때문이다. 두 후보 상승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최 후보에게서 나왔고, 유 후보 측에서도 역선택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 STORY 습관의 물리학

- PART 1 좋은 관계 맺는 습관
- PART 2 고전 속 인물의 人香萬里
- PART 3 습관에 대한 단상
- PART 4 뉴노멀 시대의 SNS 습관
- PART 5 MZ세대에게 배우는 리추얼
- PART 6 미국 시니어의 웰에이징 습관

신라보가 만난 사람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최광진 본질의 아름다움



생활속법률상식

연금부자로 가는 지름길, TDF

구해직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만 알고 하자

느린 여행

잡조름한 갯내음, 시흥 갯골생태공원



전통 정원의 멋 담양 명옥헌



산악인 박경이 경이로운 과정의美

삼촌은 시절

국가 위상과 국민 일상을 짓는 건축계의 거장 '류춘수'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물의 정원 건너 그림 속으로



습기로운 투자생활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 가이드



/ '손태승 징계 취소' 판결 후폭풍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 탐욕은 질타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 선정 과정서 편법 동원, 반대 평가표를 찬성표로 바꿔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해도 제재 가할 법적근거 없어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의 출시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DLF 상품 99%가 상품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상품선정절차에서 반대 평가표가 찬성 평가표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우리은행이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준이 미비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다.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그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있어 원래대로라면 판매되지 않았을 상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7년 8월 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360개 중 357개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나 공평협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DLF는 원금비보존형 파생상품펀드로, 펀드 지침 및 리스크 관리 지침상 상품선정위원회나 공평협 심의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2019년 3월에야 1차례

DLF 상품선정절차에서 우리은행의 내규 위반 사실

- 2017년 8월 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360개 중 357개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
- 의결에서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 제출하자 해당 위원 교체
- 위원 2명이 평가표 제출하지 않자 찬성 처리

상품선정위 및 공평협 심의를 거쳤고, 같은 해 5월까지 손실 배수를 변경해 DLF 상품을 반복적으로 신규 출시했다. 상품선정심의회 의결 과정에서는 투표 조작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위원 1명이 반대 평가표를 제출하자,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이 위원을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평가표를 요구했다. 또 리스크총괄부 소속 위원 2명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자 자산관리(WM) 추진부의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은 펀드상품 선정위원회 결의록을 통해 2명의 의견을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 조작으로 우리은행 내규 기준(위원회 위원 중 8/9 이상의 출

석과 출석 인원 70%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2018년 12월에 열린 DLF 상품선정위원회 절차에서는 상품선정 거부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소속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 상품이 출시될 수 없었으나, 그대로 상품이 출시됐다.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결과가 WM추진부의 의사를 뒷받침하도록 조작돼 원래 표결대로라면 부결돼야 할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은행 경영진으로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외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

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금감원의 4가지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 측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취임식 전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게) 뭐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문 정식 수령은 이번 주 내로 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 항소 제기 가능 기간인 2주를 모두 소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금감원 패소’ 예상됐는데... ‘뒷짐’ 진 금융위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 ‘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반복적으로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징계, 삼성생명 등 중징계 결정을 계속 해서 미뤄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소를 통해 금감원의 징계권을 가져올 명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

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 근거가 부실한데도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비슷한 이유로 다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고된 경영진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상 직무정지), 박정립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상 문책경고) 등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금감원과는 달리 금융위는 태연한 표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패소 영향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감독기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반면 한 발짝 물러나 있

던 금융위는 모든 책임에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감원의 행보에 뒷짐으로 일관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계속해서 중징계 결정을 미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번 소송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관여하려고 했으면 손 회장 연임도 저지하고, 법원까지 안 가게 했을 텐데 사실상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도 CEO 제재에 대한 판례가 필요했음에도, 금감원을 앞세워 손 안 대고 코푼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1~43조를 보면 금감원장이 징계를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양기관의 해묵은 갈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징계권을 가져올 명분을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서지연 기자 sjy@

금감원, 새 변호인단 꾸려야할 판

소송 맡았던 법무법인팀 이직 판결문 수령 최대한 미룰 듯 항소 제기 가능 기한은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총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회장의 소송전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최병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중정 소속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20여 년간 중정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2016~2019년), 금감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TF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상품분쟁조정위원회·지체규제심사위

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보험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한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 대리(소위 백수보험 사건) 승소, 자살·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재해사망 등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보험약관의 조문, 재해분류표, 장애등급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손 회장과 소송전 1심에서 패한 금감원은 항소할지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1심 판결문을 정식 수령한 날로부터 2주다. 판결문 수령은 당사자가 결정하지만 판결문 수령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다. 선고날로부터 일주일 이 지나면 법원은 판결문을 자동 수령했다고 판단한다. 1심 선고일이 지난달 27일이었기 때문에 판결문 자동 수령일은 4일 0시다. 항소 제기 가능 기한은 이로부터 2주 후인 18일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고승범號 첫 대책은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대출만기·이자유예 3차 연장 검토... “추석 전 결론 낼 것”

고승범(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정책적 결단은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다시 한번 연장해 자영업자와 피해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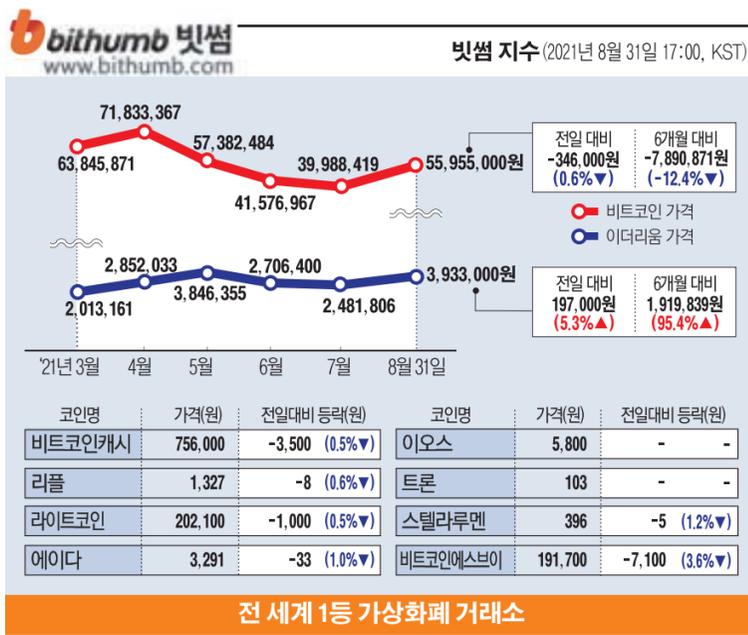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금융권 지원 종료 예정일은 이달 말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실물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이 엄중상황인 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코로나 금융지원 연

장 여부 결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전 금융권 코로나 대출 통계 마무리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장 여부를 이달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 중 구체적인 어느 선까지 연장해줄지는 막판까지 고심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부실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자상환 유예조치만은 연장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유예의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격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존재감 커진 반도체 기판... 삼성·LG, 사업 고도화 착수

반도체 대란發 物값 10% 치솟아 자연재해 등 경쟁사 공급도 차질

삼성전기, 단계적 증설 '저울질' LG이노텍, FC-BGA TF 꾸려

글로벌 반도체 공급 현상이 장기화하며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PCB) 시장도 성장에 가속이 붙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LG그룹 내 부품사도 수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산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고부가 사업진출을 타진하는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삼성전기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기판 제품 BGA(볼 그리드 어레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2년 만에 10%포인트 끌어올렸다. 2019년 17% 수준이었던 점유율은 지난해 25%까지 상승

반도체 기판제품별 특징	
※출처: 대산증권, 각사 종합	
제품명	FC-BGA
제조 방법	칩의 본딩패드 위치와 동일하게 기판에 범핑패드를 만들어 솔더볼을 이용해 연결
공급처	스마트폰용 AP 패키지, 블루투스, RF
제조사	일본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등
제품명	FC-CSP
제조 방법	FC-BGA와 같은 방식이지만 칩과 기판의 사이즈가 동일
공급처	PC용 CPU·GPU, TV, 게임콘솔
제조사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등

했다가 올해 27%를 기록했다.

LG이노텍도 상반기 반도체 기판 시장 점유율이 30%선을 넘어섰다. 2019년 23%에서 작년 28%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해당 점유율 수치는 각사가 제조하는 기판 제품의 시장 규모와 고객사 주문 현황

을 자체적으로 역산해 나온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판의 종류가 많고, 회사마다 생산하는 품목도 제각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점유율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며 "다만 반도체 기판을 제조하는 국내 부품사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설

명했다.

삼성전기는 고사양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및 고부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메모리 필수 부품인 BGA 제품과 PC용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 처리장치(GPU) 등에 들어가는 플립칩볼 그리드어레이(FC-BGA)를 생산한다. LG이노텍은 통신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립칩집스캐일패키지(FC-CSP), 시스템인 패키지(SiP) 등이 주요 제품이다.

제품가격도 올랐다. 전반적인 반도체 기판 제품가격은 상반기 동안 전년 대비 10% 후반대 안팎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수요가 특히 많았던 FC-BGA 제품 상승 폭은 4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로 수요 오름세가 1년 반 이상 지속한 데다, 고부가 제품을 제조하는 고객사 요청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쟁사 공급 차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커졌던 기판사업은 어느새 양사에 '알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삼성전기에선 1년 사이 기판 사업 영입이

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12%까지 급격히 늘었고, LG이노텍에서도 기판사업 영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경증 뛰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전기는 생산능력 확대를 저울질 중이다. 김태영 삼성전기 기획팀장(상무)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BGA, FC-BGA 두 제품 모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두 제품군 모두 단계적 생산능력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기의 FC-BGA 생산 능력은 일본 이비덴, 신코 등에 이어 5~6위권이다.

LG이노텍도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제품군인 FC-BGA 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기판은 5G폰 확산과 함께 RF-SiP와 mmWave 안테나 기판의 수요가 높고 판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며 "FC-BGA 태스크포스를 꾸린 만큼 사업 진출 여부도 관심사"라고 평가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운전자 없이 10만회 주행 성공... 차량과 소통도 가능

현대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2023년 美 달린다

현대차그룹이 선보인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실제 도로를 달릴 능력을 갖췄다. 차량과 탑승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도 곳곳에 적용했고, 디자인과 실내 공간에 미래 모빌리티의 특성도 반영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모셔널의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2023년 미국에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투입된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4년부터 시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셔널은 지난 4월 아이오닉 5를 차세대 로보택시 차량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모셔널은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와 협력해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세계 최장기간 시범 운영하며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사고와 오작동 없이 약 10만 회 이상의 주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모셔널과 함께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레벨 4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레이더와 라이다(빛으로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기술)·카메라 등 자율주행 센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30개 이상의 센서를 사용해 차량이 360

도 전방위로 주행 상황을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의 주요 시스템에는 리던던시(Redundancy)를 적용했다. 리던던시는 조향과 제동, 전력, 통신 등을 이중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조장치가 이를 대체해 운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한, 차량이 공사 구역을 지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가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연결을 시도해 새 경로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원격 차량지원(RVA)' 기술도 갖췄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디자인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지향점 '전동화 경험의 진보'를 바탕으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핵심 부품인 자율주행 센서를 차량 외관에 드러나도록 설계해 탑승자가 한눈에 로보택시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차량 루프(지붕)에 파란색 원통형의 라이

자율주행 기술 '레벨 4' 적용 30여개 센서로 주행상황 감지 이르면 2024년 국내 시범운행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사진제공 현대차

다와 카메라, 레이더 등의 자율주행 센서를 적용했고, 전·후면 범퍼, 좌우 펜더(바퀴 뒷개) 등에도 30개의 센서를 넣었다.

완전한 무인 주행을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살려 차량과 탑승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도 곳곳에 적용했다.

먼저, 운전석 전면 대시보드 상단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승차 대기 중인 고객의 아이디(ID)를 표시해 고객이 본인 아이디를 확인한 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도어 창문 하단에 적용된 LED 스트립은 차량 내 탑승자 유무와

차량 상태에 따라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고객이 먼 거리에서도 LED 색상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실내 카메라 센서로 탑승자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하거나 탑승자가 차량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센서로 물건을 감지한 뒤 안내하는 등 운전자를 대신해 탑승자의 편의를 돕는 기능도 있다. 실내 루프 중앙에는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통화 버튼과 스피커·마이크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7~12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2021 IAA 모빌리티'에 현대차 전용관을 열고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실물을 전시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포스코, 글로벌 2위 태양광 2023년까지 철강재 20만톤 공급

포스코는 글로벌 2위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사인 미국의 어레이 테크놀로지스(ATI)에 철강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 등 소재 및 태양광 구조물, 관련 부속품의 공급과 설계·이용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ATI는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부속품 설계·제작사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점유율이 17%에 달하는 대표적 글로벌 태양광 발전사업 선도 기업이다.

포스코는 국내 중소 철강업체들 및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업체를 태양광 부품으로 가공해 ATI가 참여하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공급하게 된다. 2023년까지 공급 예정 물량은 약 20만 톤이다. 추후 1만2000여 개 규모의 면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사들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포스코 제품 규격을 채용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통신비 잘 내면 가전제품 렌탈" LG, 통신비 기반 신용평가 도입

LG전자가 금융 거래 실적이 적은 고객도 LG전자 프리미엄 가전을 렌탈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통신비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한다.

LG전자는 신개념 가전 렌탈 서비스인 케어솔루션에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모형인 '텔코스코어'를 연내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텔코스코어는 LG유플러스의 통신 빅데이터와 나이스평가정보의 금융 신용평가노하우가 결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이다. 금융권의 실적정보만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기존 평가모델과 달리, 통신비 납부 실적, 통신활동 기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금융 거래실적이 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의 고객도 통신비를 연체 없이 꾸준히 낸 경우 텔코스코어를 통해 신용도를 확인받으면 LG전자 케어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중공업, 해상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 개발

현대중공업이 탄소중립시대 신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을 개발, 노르웨이 DNV로부터 기본승인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은 육상에서 포집 및 고압 액화돼 운반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중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2025년부터 동해 가스전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를 지중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 생산이 곧 종료될 예정인 동해 가스전에는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될 계획이다.

최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이 주목받고 있다. CCS는 산업 시설 등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해 육상이나 해저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올해 4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에 관한 국책과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엔솔, ESG 리포트 첫 발간

2030년 'RE100' 전환 재공언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2030년을 RE100 전환 시점으로 다시 한번 공언했다. 국제 RE100 캠페인 목표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선 계획이다.

31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ESG 리포트는 △경영진의 인사말 △ESG 활동 소개 △ESG 비전, 8대 중점 영역과 4대 추진 기반 △이사회 구성, 연구·개발 투자, 정보보안, 정도경영, 위험성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원재료 구매' 정책을 수립, 공급망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미 2016년부터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세워 운영 중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인 코발트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의의 조작이나 해킹을 막기 위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ESG 경영전략 구축을 위해 최고 심의기구 'ESG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기본정책과 전략 수립, 운용에 대한 심의·의결한다.

이다수 수습기자 citizen@

SK종합화학 'SK지오센트릭' 새 이름 달고 친환경 도약

국내외 언론 대상 '브랜드 뉴 데이' 개최

나경수 사장,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 기반 '그린 컴퍼니' 전환 공언
"연 90만 톤 폐플라스틱 처리설비 확보·2025년까지 5조 원 투자"

SK종합화학이 출범 10년 만에 사명을 'SK지오센트릭'으로 바꿨다.

동시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그린 컴퍼니'로의 전환을 공언했다.

SK지오센트릭은 31일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브랜드 뉴 데이(Brand New Day)'를 열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새로운 사명을 함께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SK지오센트릭의 파이낸셜 절거리 핵심 방향은 지구 중심에 둔 친환경 혁신"이라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목표로 연간 9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친환경 소재 확대 등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2027년까지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100%에 해당하는 250만 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해마다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의 20% 수준이다.

나 사장은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성장률은 약 12%이다. 2050년 600조 원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 "2025년에는 6000억 원 규모의 상각 전 영업이익을 창출, 재무적으로도 '그린 컴퍼니(Green Company)'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舊 SK종합화학)은 31일 나경수(사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언론 대상 '브랜드 뉴 데이'를 갖고 파이낸셜 스토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새로운 사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SK지오센트릭

SK지오센트릭은 경쟁적으로 폐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드는 국내 석유화학사들과 비교해 차별점과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강동훈 SK지오센트릭 그린비즈니스 그룹장은 "당사는 화학적 재활용 3대 기술인 열분해유·해중합·솔벤트 추출 기

술을 확보했다"면서 "이 기술들을 확보한 것은 국내 어느 경쟁사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SK지오센트릭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준감축에 대해 서원규 SK지오센트릭 전략본부장은 "2019년 기준으로 당사는 320만 톤의 폐기물을 배출 중인데

2030년까지 이것을 절반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수거와 세척 등 비용 소요로 원가는 높지만,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해 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강 그룹장은 "유럽에서 이미 폐플라스틱에 대해 1.7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리사이클 제품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늘게 되면 2023~2025년경에는 150%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지오센트릭은 향후 폐플라스틱 재활용만 아니라, 화학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나 사장은 "앞으로는 수소 경제나 배터리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새로운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리사이클 비즈니스에 중점을 주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화학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HMM 육상노조 파업 가결 오늘 사측과 교섭 '분수령'

조합원 755명 중 97.88% 찬성

HMM 해원노조(선원노조)에 이어 HMM 육상노조(사무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두 노조는 내일 예정된 사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태도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HMM 육상노조는 전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79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75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739명, 97.88%)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앞서 HMM 해원노조는 22~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표가 92.1% 나왔다. 육상노조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서 육상·해원 노조는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동투쟁위원회 발족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을 강행하기 이전에 내달 1일 예정된 사측과의 협상에 나선다. 사측과 노조는 임금인상률 등 여러 측면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한 제시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노조는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된 만큼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육상직·선원직 임금은 2019년까지 각각 8년, 6년 동안 제자리를 지켰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양 노조는 파업 등을 불사한다는 태도다. 1976년 HMM이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해원노조는 현재 선원 등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다.

노조 파업이 이뤄지면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HMM 파업으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은 중국만 들러도 만선이 돼 부산항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수출품을 실을 선박을 구하지 못하자 HMM은 작년보다 최소 월 2회 임시선박을 운항해왔다. HMM은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노조도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국타이어-슈즈 브랜드 야세 페타이어 재활용 신발 컬래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가죽 슈즈 브랜드 '야세(YASE)'와 함께 페타이어를 재활용해 제작한 신발을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서 판매한다.

매년 버려지는 페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한국타이어는 신발 깔창(아웃솔)의 주원료가 고무라는 점을 고려해 야세와 협업을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협업 상품이 타이어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MZ 세대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슈즈는 켈시 부츠, 켈시 스케이 부츠, 더비 슈즈, 더비 스케이 슈즈 등 드레스 슈즈 4종과 컴포트 인솔 1종이다. 이들 슈즈에는 한국타이어의 페타



이어를 활용했다는 의미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발 박스, TAG, 팜플릿 등이 포함된 상품 패키지에도 협업 메시지를 담기 위해 100% 사탕수수 잔여물로 만든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 이 상품은 무신사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와 야세는 협업을 통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함께한 러닝 스니커즈라인을 10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수입산 분말이 아닌 좋은 성분 가득한 생알로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알로에의 진심을 키웁니다

CURE+ INTENSIVE 2X CREAM

A comprehensive 2X Cream which provides a soothing and moist feeling to skin

김정문알로에

주문전화 1588-8870 고객센터 080-022-9191(무료) 공식몰 <https://cureofficial.com>

SK텔레콤, 8월 기준 '5G 커버리지·인빌딩' 1위

이통사, 하반기 시설투자 예상
5G 서비스 성능 경쟁 치열할 듯
KT, 다운로드 속도 2위 유지
LGU+ 인빌딩 2위로 올라서

올해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와 속도 등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했다. 5월을 기준으로 통신 3사의 속도와 커버리지, 인빌딩 시설 등 주요 항목에서 작년 말과 비교해 순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8월 측정치에서 SK텔레콤이 일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해 이통사 간 하반기 시설투자과 성능개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이통 3사의 5G 품질은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개선됐다.

85개 시에서 측정한 5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은 3사 평균 6271.12km²다. 서울·6대 광역시는 입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유동인구 밀집 지역, 도심지역 등 주요 거주·활동지역 위주로 5G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별 면적은 LGU+ 6805.25km², KT 6333.33km², SKT 5674.79km² 순이다.

주요 시설 내부(인빌딩)의 경우 백화점, 도서관, 공항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4500여 개 중 5G 이용 가능 시설 수는 4월

기준 3사 평균 3703개다. 통신사별로 KT 4205개, SKT 3923개, LGU+ 2992개 수준이다.

교통 인프라 중 지하철은 전체 역사 1028개 중 835개 역사에 통신 3사가 5G를 구축했다. 고속철도(KTX·SRT)는 전체 54개 역사 중 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중 3사 평균 51개, 고속도로는 주요 고속도로 141개 구간 중 94개 구간에 5G를 구축했다. 모두 4월 기준이다.

5G 다운로드 속도는 3사 평균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했다. 통신사별로는 SKT 923.20Mbps(전년 대비 127.63Mbps ↑), KT 782.21Mbps(114.73Mbps ↑), LGU+ 719.94Mbps

(111.45Mbps ↑) 순이다.

5G 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5G →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22%(전년 5.49%), 업로드 시 평균 1.25%(전년 5.29%)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기준 SKT 1.17%, LGU+ 1.22%, KT 1.26% 수준이다.

다만 8월 기준으로는 커버리지와 인빌딩 시설 등의 항목에서 SKT의 독주가 눈에 띈다. 8월 준수를 기준으로 한 커버리지 면적은 SKT 1만2772.20km², LGU+ 1만2598.99km², KT 1만1928.10km²로 SKT가 LGU+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또 인빌딩 5G 이용 가능 시설 수에서도 SKT 4386개, LGU+ 4331, KT 4252개로 SKT가 LGU+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SKT 관계자는 "추가 무선국 구축과 장비 출력 향상, 신호 세기 증폭, 빔포밍 성능개선 등 5G 무선국·장비 소프트웨어 성능개선을 통해 무선국당 전파 도달거리가 확대돼 커버리지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편 5G 품질평가가 5G를 선택하는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신업계의 시설투자 경쟁도 예상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통신업계의 시설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돼 집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설비투자는 하반기 집중된다"며 "특히 작년 상반기는 정부의 투자 조기 집중 요청에 따른 만큼 올 상반기 투자가 적어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교원, 부동산·교육 2개 축으로 사업 재편

계열사 11→8개 순환출자 끊어
교육합병법인 전문경영인 체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강화

교원그룹이 부동산과 투자, 교육을 양대 축으로 삼아 그룹 내 사업을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속성장을 꾀하는 한편 교육과 비 교육 사업 간 순환출자 고리도 완전히 해소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업구조로 전환한다.

교원그룹은 30일 각사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부동산·투자 관련 법인인 교원-교원프라퍼티-교원인베스트 3개사 간 및 교육사업법인인 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 2개사 간의 합병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다.

이번 합병은 법인별 사업영역의 경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사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전문경영인 체제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신속하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효율성 △각 사업에서 창출한 이익을 해당 사업부문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등 각

사업의 기업가치를 높여 혁신경영의 토대를 다진다.

부동산·투자 법인은 교원프라퍼티가 교원과 교원인베스트 2개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원프라퍼티와 교원의 합병비율은 1대 0.64이며, 교원인베스트는 교원프라퍼티 100% 자회사여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인 교원프라퍼티는 장평순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자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경영자의 리더십 아래 그룹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계열사 간 통합 시너지 창출,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 등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사업 법인은 교원에듀가 교원크리에이티브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병비율은 1대 6.3이며, 교원구문은 브랜드 독립성을 위해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사업법인 및 비 교육사업법인의 위 합병비율은 모두 외부 독립된 회계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했다.

교육사업 합병법인은 전문경영인 중심

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스마트 교육 시장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판매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강화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온라인 기술과 콘텐츠 R&D 역량을 융합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인 교원에듀는 각사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기존 에듀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복의순 대표와 그룹 내 IT 연구개발 조직을 이끈 신영욱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복의순 대표가 경영총괄과 영업부문을 맡고, 신영욱 대표는 R&D 역량 강화를 통해 에듀테크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교원구문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김춘구 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합병 후 교원그룹은 크게 부동산·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 두 축으로 나뉜다. 사업 부문은 교원에듀를 비롯해 상호 전문회사 교원라이프 등 사업영역별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며 "전체 계열사는 11개에서 8개로 줄고 기존 교육과 비교육 사업 간의 순환출자 고리도 완전히 해소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업구조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KT 직원과 번개장터 직원이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을 소개하고 있다.

KT, 번개장터와 제휴... 중고 브랜드 '민트폰' 출시

KT가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제휴해 중고폰을 살 수 있는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을 내놨다.

KT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인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중고폰을 살 수 있는 중고폰 브랜드 '민트폰'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KT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고품질의 중고폰을 매입한다. 민트폰은 엄격한 선별 절차를 거쳐 상품화되며, 최대 1년의 품질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구매가의 최대 50%를 보장해 1년

뒤 재매입하는 바이백(Buy-Back) 옵션도 기본이다.

민트폰은 현재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의 40여 개 KT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향후 판매처는 확대할 예정이다. 민트폰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구매 가능한 단말기 정보와 판매 대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트폰 구매 고객은 신규 단말 구매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및 결합할인 혜택과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A/S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탄소 저감·코로나 백신·소부장·시스템반도체...

중기부, 하드웨어·제조 유망 벤처기업 키운다

기술개발 예산 10%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Scale-UP, 기업 규모 성장) 단계의 하드웨어·제조 분야 유망 중소벤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R&D) 예산을 늘려 하드웨어·제조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나해 도입된 투자형 기술개발은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후에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 출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업 선별과 투자·육성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방안은 투자형 R&D를 2025년까지 중기부 기술개발 예산의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투자형 R&D의 80% 이상이 하드웨어·제조,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테크핀) 분야 기술유망 중소벤처에 투입될 전망이다.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중기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투자형 R&D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부

현재 비율은 63%다.

정책지정형 지원 방식도 신설했다. 정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내에 10% 비율 수준에서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하고 공모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탄소 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미세먼지, 소부장 분야 핵심기술, 시스템반도체, 기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해

당 영역은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예상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다. 정책지정형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 선정 집행구조는 팀스 방식을 확대·도입한다. 투자형 R&D는 그동안 일회성 과제 단위 선정 위주로 진행됐지만, 운영사 방식(팀스 방식의 전용 트랙)으로 전환(50% 내외)해 유망기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일명 스케일업 팀스(가칭)이다.

중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기술역량 민간회사와 투자안목을 갖춘 벤처캐피탈이 협업하도록 '연구개발서비스기업+VC' 컨소시엄을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은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전용트랙 운영사 모집을 9월에 공고해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고종민 기자 jim@

방통위, 24시간 재난전문채널 신설

시민안전통신원 1만명 운영

앞으로 재난 상황을 신속 전파할 재난 전문 채널이 신설된다. 1만 명의 시민안전통신원도 운영해 재난방송의 국민 소통 체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방송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더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는 이장·통장·방송사 교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운영한다. 이들에 대해 재난 현장 영상 촬영, 재난 관련 콘텐츠 제작·공유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한다.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재난 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도 보급한다.

KBS에만 부여됐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전문채널에도 부여된다.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통위에 구축돼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이다원 기자 leedw@

Every Step for GREEN

그렇게 한 걸음씩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화학으로 세상에 추진력을 더합니다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수소 생산, 수송, 충전 사업 및 차세대 청정 수소 에너지 개발

미세플라스틱 걱정을 줄인 EPP부표 개발
해양오염을 저감시키고, 사용 후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바다에 이로운 착한 부표

무한히 재생 가능한 C-rPET
사용한 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원료로 만들어 반복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혁신기술

패션·호텔·식품도 '골린이' 모시기

직장인 송다예(30)씨는 최근 새로운 취미인 골프에 푹 빠진 '골린이(골프+어린이 합성어)'다. 주말에 지인들과 필드에 나가는 것이 워드코로나 시대 일상의 활력소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골프의 매력"이라며 "자기 PR 시대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멋진 풍경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골프 성수기 가을을 맞아 '골린이'를 겨냥한 유통가 마케팅이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MZ세대의 성향이 소비에 반영돼 젊은 구력과 무관하게 골프 시장에선 이미 '큰손'으로 부상함에 따라 호텔, 패션, 식품, 유통업체 할 것 없이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날씨가 선선해진 최근 한 주(8월 23~29일) 동안 2030세대가 G마켓에서 구매한 필드용품(25%), 골프잡화(36%), 골프연습용품(165%), 골프클럽(10%) 등은 일제히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호텔은 골린이를 잡기 위해 '라운딩'과 '호캉스'를 묶은 패키지를 내놨다. 웨스틴 조선 서울은 가을을 맞아 여유롭게 호캉스를 즐기며 완벽한 라운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이스 제이 샷(Nice J Shot)'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아래 사진)

웨스틴 조선 서울은 "트렌디한 골프 아이템과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에서 받는 골프 레슨을 혜택으로 제공해 라운딩을 준비하면서 호텔 스파에서 피로를 푸는 여유로운 휴식까지 완벽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그제큐티브 객실부터 리뉴얼 스위트 객실 타입을 선택할 경우 웨스틴 조선 서울과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제이린드 버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21만 원 상당의 한정판 파우치와 레디세트를 제공한다.

골프 레슨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 '큐이디(QED)'에서 프로골퍼에게 듀엣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큐이디 레슨 30% 할인 바우처' 1매를 제공한다.

MZ세대, 골프시장 큰손 부상 웨스틴 조선 '라운딩+호캉스' 삼성물산 구호 '골프 컬렉션' CJ프레시웨이 '마카롱' 출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미니멀 컨템포러리 브랜드 '구호' (KUHO)는 가을 시즌을 맞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골프 캡슐 컬렉션'을 최근 출시했다. (위 사진)

구호는 "일상생활 뿐 아니라 라운딩 시에도 모던하고 미니멀한 감성이 깃든 '구호 스타일' 골프웨어를 입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모던한 디자인에 기능성을 더하면서 여유로운 실루엣, 절제된 디테일로 활동성을 강조하고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자외선 차단, 흡산속건 등 기능성을 갖춘 소재를 주로 사용했으며, '디테치벌' (떼어낼 수 있는)과 '레이어링' (겹쳐 입기) 기법을 통해 착용의 활용도를 높였다. 구호는 올해 가을·겨울 시즌 골프 캡슐 컬렉션을 아우터, 티셔츠, 니트, 팬츠, 스커트, 모자, 가방 등 의류·액세서리 총 28개 상품으로 구성했다.

유통업체는 골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골프용품 브랜드와 컬러 버레이션을 통해 이색 제품을 내놨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는 전국 30여 골프장에서 가을철 이색 간식류를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대표 이색 상품은 '럭키 마카롱'이다. 마카롱 박스 안에 동봉돼 있는 행운권을 개봉해 당첨되면 골프장별로 카트 이용권, 스타트 하우스 메뉴, 커피 무료 이용권



등 다양한 행운 상품을 덤으로 준다.

'전복 흡인원 불'과 '육.고.감.계 굿샷패키지'도 이색 간식으로 등장했다. 전복 흡인원불은 전복을 넣은 밥을 감태로 감싼 양주먹밥이다. 가벼운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육수, 감자, 고구마, 계란으로 구성된 '육.고.감.계 굿샷패키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점이 특징이다. 운동 전에 섭취하면 골퍼들의 에너지 고갈 방지와 운동능력을 향상에 도움이 된다.

KT&G는 골프용품 브랜드인 '블빅'과 콜라보레이션한 '릴 하이브리드 2.0 불빅 골프에디션' 한정판을 선보였다. 이번 '블빅 골프에디션'은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을 적용한 '릴 하이브리드 2.0'과 불빅의 'NEW VIVID' 골프공 3구, 콜라보레이션 기념 불마커가 함께 동봉된 기프트박스 형태로 구성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하이트진로 '나물'에 투자? 미래 위해 스타트업 발굴

나물 배송 '엔티' 지분 투자
물류·스마트팜 등 업종 확대

하이트진로 스타트업
발굴·투자 연혁

연도	월	스타트업
2020년	5월	아빠컴퍼니(요리버리)
	6월	이디언
	8월	식탁이있는삶(퍼밀)
	11월	푸드스(신선해)
2021년	3월	퍼밋
		스페이스리버
	8월	엔티(나물투데이)

※ 출처: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스타트업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는 업종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류 사업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비건 트렌드, 나물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해 스타트업 '엔티'를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벌써 8번째다.

엔티의 '나물투데이'는 제주도, 울릉도 등 전국 각지 농가와 계약을 맺고 나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한 후 소비자 식탁까지 배송하는 나물 유통 플랫폼이다. 특히 정기 배송과 제철 알림 서비스의 인기로 단기간에 가입 회원 수 1만6000명을 확보, 월 3만 명이상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허재균 상무는 "식품 배송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육구가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는 식음료(F&B) 분야는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19년 국내 영리기업 최초로 법인형 엔젤투자자로

선정된 이후 식품,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다양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하이트진로는 △온라인 HMR(가장간편식) 소포물 요리버리를 운영하는 '아빠컴퍼니' △리빙테크사 '이디언' △스포츠퀴즈게임사 '데브헤드' △푸드플랫폼 퍼밀을 운영하는 '식탁이있는삶'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신선해를 운영하는 '푸드스'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체 '퍼밋'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 '스페이스리버' 등에 지분투자를 해왔다.

특히 식탁이있는삶과 퍼밋이 사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의 설명이다. 식탁이있는삶의 '달구지 배송'은 지난해 매출 신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67%) 증가했다. 올 연초에는 더욱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235%) 늘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주류에 국한되지 않고 주류업과 연관된 사업 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시각장애인 컵에 손 넣지 않고 물 맞추게... 삼양·오뚜기 '점자 표기' 컵라면 출시

삼양식품 외부 물 확인선 삽입
오뚜기 전자레인지 기호도 넣어



삼양식품, 오뚜기 등 식품업체가 점자표기 컵라면을 속속 선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취식편의성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삼양식품은 점자 표기 용기면 제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품은 시각장애인의 용기면 구매 및 취식 불편함을 해소 위해 개발됐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라면을 구매할 때 점자 표기 제품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용기면 물을 맞추기 위해 용기 안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 확인해야 했다.

점자 표기 용기면은 소비자로부터 시각장애인용 제품 출시 제안이 오면서 시작됐다.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부터 용기 제작 업체에 점자와 외부 물 확인선 삽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점자 표기 용기면 출시를 준비했다.

삼양식품은 시각장애인 유튜브 '원샷한술'과 점자 표기 용기면을 공동 개발했다. 특히 원샷한술은 점자 적용 제품의 오타자 및 가독성 확인, 외부 물 확인선 등 전 과정에 참여했다. 점자는 용기면 제품 하단에 삽입했으며, 빠른 제품 확인을 위해

불닭볶음면은 '불닭', 삼양라면은 '삼양'으로 촉각 표기했다. (사진)

삼양식품은 원샷한술의 모교인 '한빛맹학교'에 점자 표기 제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큰컵 불닭볶음면, 큰컵 삼양라면에 점자 표기를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오뚜기도 내달부터 '컵누들 김치·얼큰 쌀국수'를 시작으로, 향후 오뚜기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오뚜기는 3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 제품명과 물 붓는 선의 점자 표기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점자 삽입을 검토해 왔다.

오뚜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패키지 디자인 샘플을 제작한 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점자의 위치 및 내용, 가독성 등에 대한 점자의 임합성을 높였다.

이를 토대로 제품명과 물을 붓는 선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 표기한 최종 패키지 디자인이 탄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친환경 젤 아이스팩' 롯데백 업계 첫 도입

롯데백화점은 '생분해성 친환경 젤 아이스팩'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친환경 포장재로 명절 선물 포장에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연유래물질로 만들어진 친환경 젤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하수구에 분리 배출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에 사용된 일반 젤 아이스팩과 동일한 수준의 보냉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LG생활건강, 美 염모제 헤어케어 판매 '보인카'도 품었다

지분 56% 1170억에 인수

LG생활건강이 또한번 기업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LG생활건강은 미국 하이엔드 패션 헤어케어 브랜드 알틱 폭스(Arctic Fox)를 보유한 보인카(Boinca)의 지분 56%를 1억 달러(한화 약 11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알틱 폭스는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비건 콘셉트의 브랜드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서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등 MZ세대의 호응을 받으며 지난 3년간 평균 89%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 아마존 전체 헤어 컬러 제품군에서 1위(23일 기준) 샬리 뷰티(Sally Beauty)에서 1위, 울타 뷰티(Ulta Beauty)에서 2위를 확보하는 등 주요 채널에서 톱브랜드 입지를 확보하

고 있다.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은 지난해 약 90조원의 규모이며, 이 중 하이엔드 헤어케어 시장은 약 20%로 추정된다.

LG생활건강은 인수한 알틱 폭스의 미국 내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이엔드 패션 헤어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럭셔리 헤어케어 시장에서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9월도 '박스피'... "반도체·위드 코로나株 주목을"

금통위 '2차례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투자자들 '부담' 델타 변이 확산·환율 상승 따른 外人 탈출 러시도 악재
주요 증권사 "금리인상에 가치·배당주 무게 중심 이동"

"세금 인상, 수익을 깎아 먹는 비용 압박, 테이퍼링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이 9월에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토바이어스 레프코비치 씨티그룹 분석가

"신흥시장 경제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받고 있으므로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변경에 따른 긴축발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고퍼나트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증권사 PB(프라이빗뱅크) 센터엔 요즘 '개미' 들의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9월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 '9월 괴담' 이 주식 정보를 나누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고 있어서다. 이 증권사 PB센터장은 "상품판매 길도 신통치 않은데 난데없는 소문에 시장까지 혼탁해질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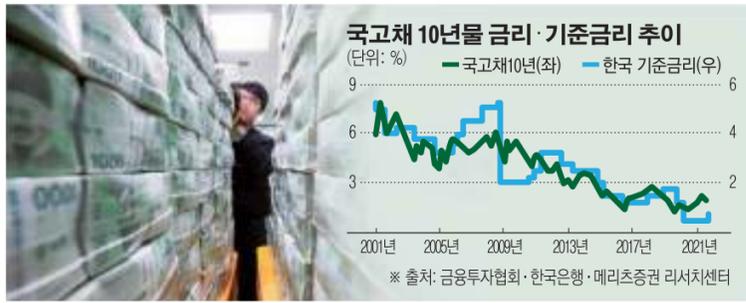
'9월 위기' 괴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이미 노출된 악재가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 분석하다. 시장 분위기도 차분하다.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5.08포인트(1.75%) 오른 3199.27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7.5원 내린 달러당 1159.5원에 마감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신호나 시장금리 변화와 환율(외국인 수급), 기업 실적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걱정많은 9월 증시 =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9월 코스피는 2950~3300사이다. 삼성증권은 3000~3300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00~3300선, 신한금융투자 3050~3250선, 한국투자증권 3000~3260선을 예상했다. 부국증권은 2950~3250선을 전망했다.

가장 큰 변수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회복세 둔화가 꼽힌다. 미국 내수 지표인 '7월 소매 판매'는 직전 달 대비 1.1% 쪼그라들었다. 미시간대 집계 '8월 소비자태도지수(잠정치)'는 70.2로 7월보다 11포인트(13%) 급락해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중국 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는 없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8.5% 증가해 로이터통신 집계 전망치(11.5%)를 크게 밑돌았고, 7월 산업 생산 역시 전망치(7.8%)보다 낮은 6.4% 증가에 그쳤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박도 부담 요인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갑작스러운 긴축통화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 다만 테이퍼링 시간표가 올해로 나온 만큼 불안 심리가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유동성 파티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행이 11월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기업 펀더멘털(기초여건) 등 큰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 방향성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책 방향 자체가 연속성을 갖는 긴축일 가능성이 크고 그 점에서 경기 모멘텀(동력) 등이 상반기보다 못한 상황들이 이어진다면(긴축의) 부담은 주식시장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기업 펀더멘털(기초여건) 등 큰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 방향성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책 방향 자체가 연속성을 갖는 긴축일 가능성이 크고 그 점에서 경기 모멘텀(동력) 등이 상반기보다 못한 상황들이 이어진다면(긴축의) 부담은 주식시장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화까지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수급도 변수다. 올해 들어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29조원 넘게 '팔자'를 지속한다.

◇'반도체의 시간이 온다' = 주요 증권사가 꼽은 2분기 유망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정유 △증권 △은행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반도체 업종 호황을 점치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9월 말 미국 인프라 투자안 의회 통과를 통과하고 채무 한도 협상이 끝나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D램에서 DDR5 전환할 예정인 반도체·기계·산업재 같은 인프라 수혜주, 음식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주를 추천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주가 반등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뭇과대 실적주인 자

동차·정유·철강·증권·HW와 정책의 영향을 받을 비메모리 소부장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코리아에셋증권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성장주 매력이크고 조정을 거친 가치주와 배당주 매력이크고"는 입장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을 매수하라"고 제안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신성장 종목 투자가 유리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세는 국내의 있을 것이나 올해 3월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등의 업종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리오프닝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리오프닝 관련주를 겨냥한 시장 투자자의 기대는 9월부터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통·패션·운송 업종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인다. 나뭇과대와 중립 이상의 실적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이안희 수습기자 nancho0907@

'배터리 대장' LG화학? 삼성SDI '시총 역전'

삼성SDI와 LG화학의 시가총액 순위가 역전되며 '배터리 대장주'라는 타이틀도 바뀌었다.

31일 삼성SDI가 시총 6위(54조5302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LG화학(53조5089억 원)과 자리바꿈을 한 것이다.

삼성SDI와 LG화학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도 희비가 엇갈린다.

김승희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I는 소형 전지 사업을 통해 검증된 레퍼런스 와 원가절감 능력을 바탕으로 원통형·각형 전지 채용 추세에 신규 수주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3분기부터 BMW 신규 모델 공급을 시작으로 하반기 EV용 배터리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에 대해 "최근 몇 달새 발생한 화재사고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코나), 오창(볼트), 폴란드(ID.3)에서 각각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가 우려되는 제품이 생산된 만큼 리콜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LG화학의 생산기술과 공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글로벌 업체 중 최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대규모 수주 여부와 고객사 이탈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카카오페이, 10월 상장 '재시동' 희망공모가 낮춰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가 6만~9만 원 정정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상단을 9만 원으로 낮췄다.

카카오페이는 31일 공모가를 6만~9만 원으로 제시하고 1700만 주를 공모한다고 공시했다. 9월 29~30일 수요예측, 10월 5~6일 일반 청약과 10월 14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새 공모가는 애초 제시한 6만3000원~9만6000원보다 3000원~6000원 내려갔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1조 200억 원~1조5300억 원이다.

상장 후 최대 시가총액은 12조5152억 원에서 11조7330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일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공모가를 다시 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정정 전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미국 페이팔과 스케어, 브라질 프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정신고서에는 페이팔과 스케어 2곳이 빠졌다.

대신 비교 대상에 브라질 핀테크 기업 스톤코(Stonco)와 미국 인공지능(AI)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홀딩스 2곳이 새로 들어갔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밴드를 소폭만 조정해 어느 정도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자들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소 청약 기준은 20주로, 청약증거금 90만 원만 있으면 카카오페이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는 결제, 송금, 투자, 보험, 대출, 자산관리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금융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 약 130개 금융사와 협력하며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장 이후 카카오페이 플랫폼만의 범용성, 연결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며 3650만 명의 사용자를 넘어 전 국민의 금융 생활을 이롭게 하는 변화를 일으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신기록' 애플, 시총 2.5兆 달러 넘었다

아이폰13 위성통신 기능 소식에 주가 3.04% 올라 '사상 최고'

애플 주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세계 최초로 2조5000억 달러(약 2912조 원)를 돌파했다.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비둘기' 발언에 힘입어 다른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 미국 증시가 새 역사를 다시 썼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애플 주가는 전장보다 3.04%(4.52달러) 급등한 153.12달러에 장을 마쳤다. 증가 기준 이전 최고치 151.12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다.

이에 시가총액은 2조5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애플은 2018년 8월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차기 프리미엄폰 '아이폰13'에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애플 주가를 밀어 올렸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망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위성전화로 아이폰을 진화시키려는 것이냐는 기대가 나왔다.

지난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규정을 완

애플 시가총액 추이 (단위: 조 달러) ※ 현지시간 증가 기준



화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합의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미국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고개 숙인 ... 金펀드 전망도 '암울'

온스당 2100달러 찍은 뒤 하락...3개월간 191억 자금 유출

2020년 9월 '금 펀드'에 2000만 원을 넣은 박 모 씨(44)는 31일 콜센터통해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기가 막혔다. 누적 수익률이 -10%. 박 씨는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란 착구 직언 말만 믿고 목돈을 넣었는데 수백만 원 손해를 봤다"며 "지금이라도 판매해야 하는 건 아닌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말했다.

금값이 반짝 상승했지만, 대표적 원자재펀드인 금 펀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금 펀드(12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7.46%이다. 1년 수익률은 -12.43%나 된다.

1개월 수익률이 -1.48%로 개선됐지

만, 3개월 수익률은 -8.52%로 여전히 부진하다. 펀드 유형을 분류하는 테마 가운데원자재(주식) 펀드(-9.61%)를 제외하고는 꼴찌다.

금값이 고점 대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181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초 금값은 온스당 1520달러에서 거래됐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온스당 21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은 연초 온스당 1905달러에서 이후 1700~18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금 펀드

에서는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에만 191억 원이 유출됐고 1달만 해도 133억 원이 줄었다. 개별 상품별로도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중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주말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시행을 밝히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당분간 금의 하락한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테이퍼링 경로가 명확해지면 금 가격은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이며 완만한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KB자산운용, 국내 첫 '5년 국채선물 ETF'

KB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5년 국채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KBSTAR국채선물5년추종ETF'와 'KBSTAR국채선물5년추종인버스ETF'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STAR 국채선물5년추종 ETF'는 한국거래소(KRX)의 '5년 국채선물 추종

지수'를 기초로 5년 국채선물의 성과를 추종하고, 'KBSTAR 국채선물5년추종 인버스ETF'는 5년 국채선물 일간수익률의 -1배를 추종한다.

KB자산운용은 만기별 국고채 ETF 라인업을 완성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삼동 효성청솔아파트 전용면적 59㎡형)

‘GTX 의왕역 부활’에 주변 집값 하루 새 8000만원 급등

정부 신규택지 지정 ‘후광효과’ 다리 건너 군포까지 호가 4억↑ 지자체 ‘완행열차 될라’ 불멘소리

경기 의왕시가 신규택지 후광효과를 누리게 됐다. 물 건너간 듯했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C노선 유치 불씨가 신규 택지 덕에 되살아나서다. 주변 지역에선 정착역이 늘어나면서 GTX가 완행철도가 될 수 있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의왕시와 군포시·안산시 사이에 4만1000가구가 살 수 있는 신도시급 택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선 택지 부지 안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에 GTX C를 정착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GTX 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삼성역 등을 거쳐 수원시 수원역에 이르는 급행철도 노선이다. GTX C를 이용하면 의왕·군포·안산신도시에서 삼성역과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25분, 35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의왕시는 올 상반기에도 GTX C 유치를 두고 경기 안양시와 경쟁을 벌였다. 의왕시는 의왕역을, 안양시는 인덕원역을 밀었다. GTX C 건설·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로 6월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의왕역 대신 인덕원역 설치를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의왕역에 GTX C를 유치하는 건 물 건너간 듯했다. GTX C 유치 기대감이 높아졌던 아파트 매물 호가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풀 꺾였다.

국토부가 의왕역에 GTX C를 정착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의왕시 부동산시장엔 다시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의왕역 인근 삼동에서 사랑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순덕 대표는 “어제오늘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GTX가 정착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는 많아졌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기대감이 매물이 잠기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역에선 도보로 10분 거리(약 700m)에 있는 장미아파트에선 31일 현재 포털에 게시된 매물 4건 중 3건이 하루 새 호가가 500만~3000만 원 뛰었다. 삼동 효성청솔아파트에서도 전용면적 59㎡형 호가가 5억 5000만 원까지 올랐다. 의왕·군포·안산신도시가 공개되기 전 이 단계에서 나왔던 같은 면적 매물보다 5000만~8000만 원 비싸다.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높은 값이다.

신규 택지 조성고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후광효과는 의왕역 인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국토부가 올 2월 경기 광명·시흥신도시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고 이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제2경인선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서울 구로구가 그 후광을 누렸다.

제2경인선은 구로구 구로동에서 출발해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를 거쳐 인천 인천역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이 중 구로~광명 구간은 구로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 구로선 철도 노선이 확충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차량기지까지 치우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구로차량기지와 담을 맞대고 있는 구로주공 2차 아파트에선 연초만 해도 전용 64㎡형이 8억4000만 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12억 원을 호가한다.

이 같은 후광효과가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이 대표적이다. 제2 경인선의 경우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정해진 광명사에서 차량기지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GTX C 의왕역 정착도 주변 지자체에선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정착역이 많으면 열차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GTX C노선의 역 간 평균 거리는 약 8km이지만 의왕역과 그 다음 GTX C역인 군포시 금정역은 6.4km 떨어져 있다. 이미 금정역에 GTX를 유치한 군포시가 의왕역 등 정거장 추가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종화 기자 pbell@

집값 치솟자 경매까지 불장 수도권 낙찰가율 역대 최고

서울 117% 전월대비 10% 상승 경기 116%·인천 124% 등 기록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치솟자 법원 경매시장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8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물론 경기, 인천 아파트까지 매매값이 일제히 뛰면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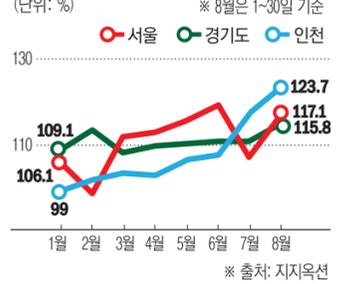
3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서울 아파트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117.10%로 전월보다 10.1%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각각 115.80%, 123.70%를 기록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경기지역의 경매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11.72명으로 작년 4월(11.87명)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 경매시장이 이처럼 주목받는 건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들끓고 있어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57% 뛰었다. 작년 연간 상승률(13.06%)에 근접하는 수치다.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7734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은 올 들어 누적 상승률이 각각 21.16%, 21.75%에 달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탔다.

이런히 지지옥션 연구원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대안으로 경매시장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가 많아졌다”며 “감정가가 시세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추이 (단위: %)



보다 낮아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고가 낙찰 사례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8단지 전용 51㎡형 물건은 감정가(2억 원)보다 훨씬 비싼 3억2935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무려 165%에 달했다. 감정가가 시세(3억8500만 원)보다 낮다 보니 응찰자도 55명에 달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라인아파트 전용 84㎡형은 감정가(5억8000만 원)보다 4억 원 가량 비싼 9억7388만 원(낙찰가율 168%)에 매각됐다. 하지만 시세(10억 원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 인근 방화4단지 전용 134㎡형은 감정가(7억 5900만 원)의 151%인 11억479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매물의 시세는 13억7000만~14억 원선이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의 광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라 관측이 많은 만큼 경매 참여자들도 공격적으로 입찰하면서 낙찰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與 ‘실거래가 등록법’ 발의, 시장 ‘깜깜이 집값’ 우려

“허위거래 인한 시세조작 방지 등기 마친 거래만 등록 가능”

“계약 후 등록까지 시차 있어” 시장 파악 불가 ‘역효과’ 지적

여당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뿌리 뽑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내놨다. 기존 매매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를 마친 거래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일과 등기일 간 시차로 정확한 시세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움직임 파악이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등기를 마친 부동산 거래만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주요 내용	발의 내역
민주당 강병원 의원 (8월 27일)	-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공개 -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 미등기시 조사
민주당 이원욱 의원 (7월 12일)	- 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신고 - 거짓 거래신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인 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를 통해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이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완료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면 시세 파악과 아파트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제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앞서 발의 된 이 의원 안을 적용하면 주택 실거래가 등록기한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최대 90일로 늘어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 완료 사례만 신고하도록 하면 국민인 시장 소비자들은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부는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매매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빌라 10채중 3채는 외지인이 샀다

도봉·양천·구로 매입률 40%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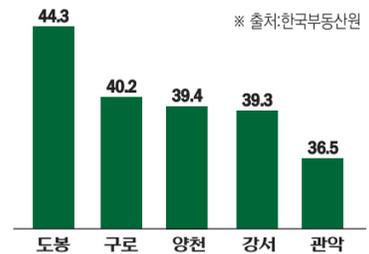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채 중 3채는 서울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봉구와 구로구 등 재개발 관심지역의 경우 외지인의 비아파트 매입 비율은 40%에 달했다. 수도권과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재개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25개 자치구의 외지인 비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7년 상반기 18.7%에서 올해 6월 31.2%로 늘었다.

특히 도봉·양천·강서·용산·관악구의 경우 외지인의 비아파트 매입 비율이 40%에 달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외지인 비아파트 매입 비율은 16.4%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4.3%(1280건)까지 치솟았다. 구로구는 이 기간 32.4%에서 40.2%로 올랐다.

양천구는 2017년 상반기 17.4%에서 올 상반기 39.4%, 강서구는 17.7%에서 39.3%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관악구는 16.9%에서 36.5%로 올랐고 용산

서울 주요 자치구 외지인 비아파트 매입 비율 (단위: %, 2021년 상반기 기준)



구는 31.3%에서 38.3%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에 외지인 수요가 몰린 이유는 향후 재개발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용산구를 제외하면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곳이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도봉구의 경우 도봉2구역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상문1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는 신원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로구 고척4구역은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악구 역시 봉천13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조선인 전범, 위안부 피해자와 달라” 정부 보상 노력 불필요

현재 “국제전범재판소 국제법적 지위·판결 효력 존중해야
한일청구권 협정 3조 적용하기 어려워”... 헌법소원 각하

일본군 강제징병으로 전쟁범죄자(전범)가 됐지만 정부가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현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 등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남아시아 각국에 위치한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배상 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

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두고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외교 등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했다.

현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 생긴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과 동일한 범주로 보고 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재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일본의 책임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협정 해석 등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정

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가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작위의무이행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31일 상영을 끝으로 영업 종료 앞둔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극장은 1978년 9월 17일 ‘마지막 겨울’을 첫 상영작으로 문을 연 뒤 80-90년대 한국 영화 부흥기에는 단성사와 피카디리, 허리우드, 스키리, 국도극장, 대한극장 등과 함께 친구, 연인, 가족들이 찾는 문화중심지로 명성을 누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警,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야당 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도 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스티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

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스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파이스티 도시계획시설사업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규탄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

“수사 검사만 참여해 일방적 진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심의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개최 사실에 대해 당일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후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 진술권과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공소심의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에 수사검사와 피의자 측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사 검사만 참여해 일방적으로 의견

을 진술했다”며 “피의자 측 의견서는 심의 위원에게 배부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A 씨가 해직 교사 채용을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를 특정해 “역차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조 교육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A 씨로부터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A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제지 수사기자 sunrise@

“자치구 문화정체성 확립·구민 문화갈증 해소”



금천구 ‘금천뮤지컬센터’
연습실·강의실·공연장 등 마련
“뮤지컬 교육 거점으로 만들 것”

“문화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합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 ‘금천뮤지컬센터’를 둘러보던 유성훈 구청장이 힘주어 말했다. 전국 최초로 뮤지컬 특화 전문 교육·창작 공간인 금천뮤지컬센터는 금천구의 문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든 곳이다. 뮤지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구민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4층에 연습실, 강의실, 공연장, 영상스튜디오 등이 마련돼 있다. “금천구가 서울 막내 자치구예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구민들도 문화에 대한 갈증이 많았고요.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천구가 그냥 스쳐 가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활력 있는 문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뮤지컬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죠.” 유 구청장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도시의 선결 조건으로 꼽았다. 지역 내에서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시설이 있다면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금천뮤지컬센터’ 내 소극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금천구

문화 소외감을 극복할 뿐 아니라 계속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서울미술관,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천뮤지컬센터는 기능과 활용 면에서 ‘국내 유일’의 장소다. “금천뮤지컬센터 문화예술계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기관입니다. 뮤지컬을 교육하는 시설이 많지만 창작을 위한 교육으로 접근해 콘텐츠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배우가 되려고 해도 학원을 가야 하고요. 여기서는 배우나 PD 등 자신에게 맞는 역할들을 체험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국립예술고등학교, 뮤지컬 협회 소속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도 만들었죠.” 흥인석 기자 mystic@

‘전자발찌 훼손·연쇄 살인’ 50대 구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29일 오전 8시경 경찰에 자수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금전적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날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등 범죄경력 이 14회에 달하는 강 씨는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복역 중 지난 5월 가출소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pay에 LIFE를 더해

이제, pay의 시대에서 p^{lay}의 시대로

- LIKE 좋아할 만한 걸 파악하고
- LINK 원하는 건 다 연결해주고
- LIVE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 LEAD 올바른 소비습관으로 이끌어주니까
- LIFE 인생이 더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신한 p^{lay}

2021년 10월
신한페이판이 신한 p^{lay}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신한카드로부터
신한 p^{lay}

“디지털농업으로 청년들 선망하는 블루오션 만들 것”

취임 1년 맞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고령화·인구 감소로 농업·농촌 소멸 위기, 청년층 유입돼야 편리하고 고수익 내는 산업 탈바꿈 ‘한국판 농업뉴딜’ 추진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결국 청년들이 유입돼야 한다. 농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힘들고 돈 안 되는 농업에서 편리하고 고수익 내는 분야로 탈바꿈시켜 청년들이 선망하는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임 1년을 맞이한 허태웅(사진) 농촌진흥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판 농업뉴딜’에 대해 강조했다. 디지털 농업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다.

허 청장은 “4년 전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농고 진학을 권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농업 분야는 청년층 희소성이 크고 첨단 산업이 융복합되는 농업을 선점하면 충분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올해 7월 ‘청년농업인육성팀’도 신설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청장은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창업 준비부터 자립 경영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협업을 통해 기술창업 보육기반을 확대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는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2018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청년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됐다. 대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했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청년농업인은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 잘 몰랐다는 것이다. 이후 청년들에게 혜택이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다.

농업뉴딜의 다른 한 축은 바로 디지털농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도 맞닿아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고효율 스마트 정밀농업’을 구



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결국 청년 농업인의 성공도 디지털농업이 열쇠가 될 전망이다.

허 청장은 기존 시설농업 중심 디지털농업을 노지 분야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의 소속 과학원이 있을 만큼 기술을 근거한 농업 데이터를 보유한 농진청이 디지털농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각오다.

허 청장은 “노지 농업은 농작물 생산에 있어 자동화·기계화 수준이 낮고 고강도·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데다 인공적으로 제

어가 불가능한 생산환경을 갖고 있어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해 관리하는 ‘농업현장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먼저 25개 주요 작목과 기술에 대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지능화는 물론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등 농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치유농업도 부각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2013년 1조 6000억 원에서 2017년 3조 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에 발맞춰 농진청은 올해 4월 ‘치유농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허 청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계해 치유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치매와 정신 및 신체장애나 소방관이나 간호사 등 업무상 정신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며 “우리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해 우울감, 폭력성 등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세희 후보 당선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으로 기호 1번 오세희(사진 가운데)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은 전체 유효 투표수 52표 중 29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표로 뒤를 이었다.

오 회장은 현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맡아왔다. 오 회장은 2024년까지 3년 임기로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오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역점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와 화합의 자세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im@

게시판

한국연구재단 ICT연구단장 이상민 교수

한국연구재단은 9월 1일자로 ICT·융합연구 단장에 이상민 인하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장은 앞으로 2년 동안 ICT·융합연구단 소관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학제 간 융합·복합 분야 연구 동향 조사와 기획, 과제 평가, 지원과제 관련 통계와 성과 관리, 우수성과 발굴 등 성과 활용 촉진, 대외협력 업무 등을 맡게 된다.

KOICA, 임정희 라오스 소장 이사 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임정희 KOICA 라오스 사무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1990년 충남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했고 한양대 국제의료관리 행정학 석사, 가천대 지역개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코이카 창립 멤버로 입사해 원조조달부 부장 직무대행, 연수사업실장, 인재경영실장,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의료원에 ‘백신 혁신센터’ 설립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100억 기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추진 중인 ‘정몽구 백신 혁신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사재 100억 원을 기부했다.

31일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성원해 주신 국민께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에 이바지할 백신 혁신센터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감염병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평소 국민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백신 혁신센터 기부는 그의 이런 사회공헌 철학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정몽구 백신 혁신센터’를 운영할 고려대 의료원에 전달된다. 글로벌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은 물론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된다.

현대차그룹과 고려중앙학원은 고려대학교 인촌 기념관에서 ‘기부금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을 대신해 정의선 회장이 참석했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김걸·공영운 현대차그룹 사장도 함께했다.

체결식에 나온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언제나 고민해 오셨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연구진으로 구성된 고려대의료원이 백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명예회장의 뜻이 더해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 정릉 캠퍼스에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연구와 산학협력, 교육을 담당할 △메디사이언스파크(Mediscience Park)를 조성 중이다. 내년 완공이 목표다. 이 가운데 정몽구 백



정의선(왼쪽 네 번째)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재호(세 번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3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 기념관에서 열린 ‘정몽구 백신 혁신센터’ 기부금 약정식을 마친 뒤 인촌 김성수 선생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혁신센터는 ‘메디사이언스파크’의 대표 시설로 자리매김한다. 이곳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기초 연구와 감염병 대응 미래융합을 연구한다.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와 전임상 연구 플랫폼 등을 완비, 신약개발 등 다각도의 연구 거점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고려대

의료원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고 기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신 혁신센터 이름을 ‘정몽구 백신 혁신센터’로 지었다.

앞서 정 명예회장은 3월 우수 의료 인재 양성과 안전한 병원 시스템 구축에 사용해 달라며 서울아산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 ◆교육부 ◇일반직 승진 △강원대 산학연구기획과장 정구용 △목포대 학생지원과장 전수문 △부산대 연구진흥과장 정기연 △전남대 입학과장 이순흥 △전북대 입학과장 양수경 △제주대 재정과장 이광태 △순천대 입학지원실장 김성대 ◇교육전문직 △학교혁신지원실 장학관 박수경 △교육복지정책과 장학관 정금현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역발전정책관 김명선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장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고재강
-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개발전략국 신재생에너지기반과장 우종하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장 양건식 ◇4급 승진 △개발전략국 신재생에너지기반과

- 홍수환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 강창선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 박주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수상임이사 김선욱
-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 △뉴욕지사장 박재석 △방콕지사장 이상우 △관광기업육성팀장 박운숙 △MICE기획팀장 이영근 △기획조정팀장 고봉길 ◇파견 △울산관광재단 조홍준
-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급 부사장 탁현수 △안전기술본부장 송현규 ◇부장급 △고객서비스처 수요개발TF부장 이기창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순혁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전홍식
- ◆한국금융연구원 △ESG 연구센터장 이병윤
-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재무관리부 조상기 △감사실 남성길 ◇2급 승진 △학자급대출부 현범섭 △정보화관리부 김도은 △

- 국민소통부 황기환 △고객지원부 홍성준
- ◆DB금융투자 ◇보임 △본사영업사내지 TFT팀장(상무) 김병직 △기업금융1팀장 이정열 △부동산금융3팀장 백진욱 △Wrap 운용팀장 김정철 △벤처상품팀장 이재성
- ◆동아프린테크 △이사 조권희
- ◆한겨레 △미디어전략실장 최우성 △저널리즘책임실장 권태호 △편집국 신문총괄 석진환 △편집국 콘텐츠총괄 정은주 △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부장 송호진 △편집국 이슈부부장 이주현 △이노베이션랩 준비팀장 고경태
-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김주성 △DB콘텐츠팀장 김지오
- ◆코리타임스 △사업관리팀장 임미영
- ◆KBSO트비전 △사장 윤창범
- ◆그린포스트코리아 △광고국장·상무이사 김대섭
- ◆공감신문 △편집국 부국장 이성철

부음

- ‘자원봉사·웰다잉’의 어머니, 김옥라 여사
- 1950~1960년대 한국걸스카우트, 1980년대 자원봉사, 1990년대 호스피스와 웰다잉(Well-Dying·잘 죽는 법) 등 시대를 앞선 이슈를 제기한 옥천(玉泉) 김옥라(金玉羅) 각 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8월 30일 낮 12시 5분께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2세(만).
- 1918년 9월 강원도 간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 도시샤여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광복 이후 미군정청과 문교부(현 교육부)·외자청에서 근무했다.
- 1967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초대 부회장을 시작으로 2대 회장(1967~1973)과



감리교여성선교회 전국연합회장(1974~1982)을 지냈고, 1981년부터 5년간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회장을 맡아, 단체를 유엔의 NGO로 등록시키으로써 한국 여성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기구 수장이 됐다.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교회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에 기여했다.

▲김옥기(전 전남도의원) 씨 별세, 박복순(나주시 반남정승보건의료소장) 씨 남편장, 김대진·자영·민영 씨 부친상 = 3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종합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2일 오전 9시 20분, 061-820-0844

▲석춘옥 씨 별세, 서정원(중국프로축구 청두 감독) 씨 모친상 = 3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31-787-1503

홍준욱의 머니무브



EAR리서치 대표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헤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또 한국증시에 투자한 성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기에,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리밸런싱 목적의 한국 주식 매도를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글로벌 연기금의 한국 주식 매도 공세는 달러 강세 우려가 완화되며 진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리밸런싱 목적의 일부 매도는 당분간 더 출회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원인이 대략적으로나마 밝혀진 것 같다. 최근 유안타증권의 김후정 애널리스트가 쓴 흥미로운 보고서 '외국인 매도와 자산배분'을 보면, 한국 관련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었음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 공세는 펀드 관련 자금 흐름 변동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의 행동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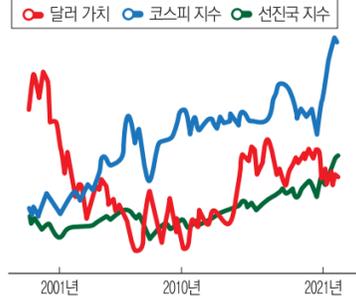
일단 글로벌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왜 한국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야생마 같은 한국 주식시장에 글로벌 연기금이 투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달러약세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헤지 수단이란, 어떤 위험이 발생할 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는 미국 달러가치와 한국 종합주가지수(코스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달러 약세 국면마다 코스피가 급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반전할 때에는 어김없이 코스피의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한국

해외 연기금은 왜 한국 주식을 팔았을까

2001년 이후 달러 가치와 코스피 지수 및 선진국 지수 추이



이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평가손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연기금 입장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 주식시장은 아주 적합한 헤지 수단이 된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에 조금만 투자해 놓아도 달러 약세 국면에 수익성이 아주 크다. 워낙 거래 대금이 많기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싶을 때에는 신속하게 매도할 수 있는 장점도 부각된다. 따라서 최근 글로벌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매도한 가장 직접적 이유는 달러 강세라 할 수 있다. '헤지 목적'을 달성한 만큼, 한국 주식을 굳이 대량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달러 강세' 때문만은 아니다. 자산 배분 리밸런싱 수요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리밸런싱이란, 목표 자산의 배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매매를 뜻한다.

예를 들어 A 연기금이 자산의 절반을 달러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원화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2020년 3월처럼, 달러의 초강세가 출현하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으로 치솟았다면? 아마 A 연기금의 자산 배분 비율은 미 달러화 60, 원화 40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때 리밸런싱이 시작된다. 미국 달러 자산의 10% 포인트를 매도한 다음, 이를 원화 자산 매입에 투입함으로써 다시 50대 50의 배분 비율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기금은 폭락한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 상황이 출현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탄력적인 주가 상승 결과, 한국 원화 자산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2020년 3월의 저점에서 2배 이상 상승한 데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마저 1100원대로 떨어진 만큼, 이제 반대로 방향의 리밸런싱이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어차피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헤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고 또 한국증시에 투자한 성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기에,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리밸런싱 목적의 한국 주식 매도를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연기금의 행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먼저 지난 주말 열렸던 잭스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최근 미 달러의 강세가 출현했던 이유가 일부 연준 멤버들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있었음을 감안할 때, 잭스홀 컨퍼런스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리밸런싱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주식가격이 고점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에 전체 자산 내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높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가 선진국 시장(Developed Market·DM)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지속 중이다. DM 증시는 크게 보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증시만 탄력적으로 상승할 뿐 다른 선진국 증시는 부진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글로벌 연기금의 한국 주식 매도 공세는 달러 강세 우려가 완화되며 진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리밸런싱 목적의 일부 매도는 당분간 더 출회될 전망이다.

마음상담소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른들은 어느 쪽일까? 어른들에게 "식사는 잘 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입맛이 없다"거나 "이 나이에 밥맛이 있다,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지"라고 답한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 죽을 수는 없으니 입맛이 없어서 '죽지 않으려고' 드신다는 것이다. 씁쓸한 현실이다. 혼자 산 시간이 길면 갈수록 어른들의 밥상은 외로운 감정조차 무뎠어져 버린 마음처럼 공허하다. 반찬이탈 것도 없이 밥에 김치나 장 종류만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다. 식사라기보다는 끼니를 때우는 식이

밥 한 끼의 의미

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하고 이제는 드시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사별 후 사식들과 떨어져 지인 집에 의탁하고 있는 김○○ 여르신은 혼자 식사할 때가 가장 외롭다고 말씀하신다. 입맛은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채운다는 여르신은 부실한 식사를 걱정하는 나에게 "괜찮아 이제 이골이 나 괜찮아"하며 웃으신다. 요리에 서툰 남성 여르신의 경우에는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상실했다는 70대 남자 여르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매번 사 먹을 수도 없고, 요리도 못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르신은 챙기는 것조차 귀찮아 대충 몇 숟 뜨고

말았는데 보건소로부터 반찬 서비스를 받은 후로는 먹는 게 좀 나아졌다고 하신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는데 다 만성질환도 있다 보면 식욕부진은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문제는 식사 부실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까지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평소 소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2%, 극단적 선택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49%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혼자 먹기 위한 밥상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드물다.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긴 밥 한 끼의 의미가 사라진 탓이다.

우리들에게 밥은 그냥 밥이 아니다. 밥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다. 밥에는 가족들의 따뜻함과 그리움 등 정서적인 느낌이 담겨 있다. 우리가 반찬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그리운 한 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지킴이들도 이 활동을 통해 안부도 챙기고 말벗도 되어 주고 한 끼라도 밥다운 밥을 드시게 함으로써 기운을 내게 마음을 전한다. 밥맛이 있어야 사는 재미도 더할 수 있다. 밥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나누던 정을 여르신들도 밥 한 끼를 통해 느끼고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킨 허바드 명언 "내 사업이 끝나는 곳에서 남의 사업이 시작된다." 미국의 만화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유머작가'라는 평을 듣는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 작품은 '히베 마틴'. 평생 8000개 이상의 그림을 만들고 1000여 개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일러스트레이션했다. 인디애나 저널리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68-1930. ☆ 고사성어 / 무왕불복(無往不復)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다. 인생사에는 이런저런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남에게 끼친 선행이나 악행은 꼭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고르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없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無平不破 無往不復].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지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 근심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게 되어 먹을 복이 있게 된다." 출전 주역(周易) 지전대(地天泰).

부산과 명동, 잠실이란 곳은 자연스레 롯데를 떠올릴 만한 지명이다. 부산엔 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외에도 롯데백화점이 4개나 있고, 9월엔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제2 롯데월드도 들어선다. 명동에는 롯데 본점과 면세점, 롯데호텔이, 잠실에는 롯데월드타워와 백화점 잠실점 등이 위치해 롯데타운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롯데는 경기 남부권 최강자 타이틀도 추가할 셈이다. 2014년 롯데백화점 수원점으로 스타트를 끊더니 이듬해에는 롯데아울렛 광고점을 내놨다. 3년 뒤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을 출점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최대 규모로 화성에 동탄점까지 선보였다. 9월 10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30분 거리인 백운호수 인근에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도 문을 연다. 롯데의 거침없는 오프라인 사업 진격을 보고 있노라면 역설적으로 온라인 사업의 상대적 열세와 불균형이 도드라진다.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양분화에 나서고, 40년 라이벌 신세계-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품고 SSG닷컴이 상장을 추진하지

만, 롯데에선 특별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대표 사업인 롯데는 출범이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커머스는 결국 빅3만 남고 대부분이 사라지는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하다. 전망대로라면 쿠팡과

네이버는 유력한 빅2이고, 한 자리만 남았다.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그룹과 아마존을 등에 업은 11번가, 40년 유통공룡 자리를 지켜 온 롯데 중 어디가 그 한 자리의 몫을 차지할까. 수 년째 신동빈 회장은 신년사와 사장단 회의(VCM)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목 놓아 외치고 있건만 어찌된 일인지 '디지털'이란 단어는 최근 개장한 동탄점에 대형 LED와 체임존 등으로 얼마나 '디지털화'됐는지 나타내는 수식어로만 사용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롯데는 여전히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다나와 등의 인수전에 유력후보 1순위로 물망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롯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시급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 시사상식/오쿤의 법칙(Okun's law) 미국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험법칙. 경기 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오쿤은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에서 1971~1998년 사이에 실업률이 1% 늘면 GDP는 3.6%가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기저수첩



남주현 유통바이오부/jooh@

롯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불균형

롯데의 거침없는 오프라인 사업 진격을 보고 있노라면 역설적으로 온라인 사업의 상대적 열세와 불균형이 도드라진다.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양분화에 나서고, 40년 라이벌 신세계-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품고 SSG닷컴이 상장을 추진하지

만, 롯데에선 특별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대표 사업인 롯데는 출범이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커머스는 결국 빅3만 남고 대부분이 사라지는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하다. 전망대로라면 쿠팡과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고운 우리말 / 문풍하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옹졸하지 않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3040의 눈물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기업(지금은 없어졌지만)에 취업했다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을 당했다. 구조조정으로 그 부서 자체가 독립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번 분사와 매각을 통해 지금은 다른 대기업의 재해정업체가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운 생존의 길을 가고 있다.

또 다른 지인 B 씨는 학창 시절 영재로 불릴 정도로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했으며, 군대는 카투사를 나온 재원이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가 거둬진 실패와 외환위기 사태 이후 다른 취업을 노릴 수 없게 됐다. '고시 패인'으로 전략해 지금은 슈퍼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은 꿈도 못 꾸다가 최근 부모님의 성화에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인의 실패가 과연 그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만일 A 씨가 여러 대기업 중 그 기업만 고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B 씨도 당시 사법고시 준비를 하지 않고 학교에 쏟아지

던 기업 추천장을 골라 취업했다면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현재 30·40대 고용취약층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한 번 실패자가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된다. 정부 정책도 30·40대나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없다. 약간의 생활자금 지원이나 대출이 전부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들이 실패자로 전락한 사례가 많지만 정책의 시각은 이들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주택정책이나 고용·복지정책에서 30·40대에 맞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사 정부가 개과천선해 30·40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실패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사회적 반향이 클 듯하다.

정책의 초점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국민의 인식 변화는 없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새로운 고용 취약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은 외환위기·금융위기 세대의 실패자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취약층으로 전락한 30·40대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최근 내놓은 '청년특별대책'이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퉀 공약하는 청년정책처럼. 아니면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같은 정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뜻 깊게 되새기지 않을까. lawsdm@

노트북을 열며

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존 리 대표의 '삼성전자 애증'

"삼성전자의 약점을 꼽으라면 사업이 너무 분산돼 있는 것이다."

최근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에 '십만전자'를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 네티즌들까지 가세해 갑을론박이 펼쳐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직후 '바이 코리아'를 외치며 3년 만에 100조 원의 자금으로 모았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현 KB증권) 회장, 미래셋 신화의 주인공 박현주 회장에 이어, 증권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 존 리 대표다. 물론 증권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익치 전 회장, 박현주 회장과 존 리 대표를 동일선상으로 놓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존 리 대표는 주린이(주식 초보 투자자)나 일반인들에게 '동학개미'들의 수장(首長), '존봉준'(전봉준+존리)이라고 불린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팬과 안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붙는다. 존 리 대표 역시 안티가 많다.

가치 투자를 기치로 내걸고 판매한 메리츠코리아펀드가 수년간 수익률이 저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중에게 가치투자기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펀드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자주 교체하면서

시작했다. 삼성전자를 놓고 그의 시시각각 변하는 언행 불일치가 많은 이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 존 리 대표는 초기부터 줄곧 가치투자기치를 설파하면서 삼성전자 투자를 가정한 수익율을 내세웠다.

199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0년간 서울의 아파트는 252%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568.5%, 그중 삼성전자는 3354% 올랐다는 것이다. 자신도 과거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년 만에 각각 140배와 7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역시 삼성전자'라는 생각을 각인시켰다. 정작 그가 운용하는 펀드들에서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등이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사지 않던 그는 삼성전자가 주가와 실적이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던 2016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펀드에서 매수했다. 그는 외환위기로 주식이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를 기준으로 장기투자 시 수익율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수익을 비교를 방송 등을 통해 이야기하며 장기투자를 설파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아박한 평가에 나선 것이다. 물론 펀드에는 삼성전자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업이 너무 분산돼 있다는 그의 평가에 삼성전자 주주들과 안티 네티즌들은 '계열사가 160개가 넘는 카카오는 사업이 분산돼 있지 않아서 펀드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반문한다. 빨간 일부 게이들 중에서는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고 펀드가 해체됐던 장하성 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용했던 과거를 끄집어 내기도 한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맞게 메리츠자산운용을 업계 최상위로 키워냈다. 경영자인 그에게 마케팅이나 투자 철학을 묻는 것은 몰라도 개별 종목에 대해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누가 좋다고 해서, 오를거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투자한 경우다. 존 리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유튜브에서도 분명 말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할 때 반대로만 해도 돈을 번다고. 실제로 존 리 대표가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할 때, 반대로 주식을 팔고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투자 후기도 많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분석과 판단으로 해야 한다. 이득을 본다고 나눌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다고 그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복구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skj78@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빛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 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 31조3000억 원이다.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신설이 이뤄지고 저소득 청년 월세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비용 등 방역예산도 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이 216조7000억 원으로 8.5%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35.9%나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 연구개발(R&D) 등에 3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23.9% 늘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뿌리기와 무관치 않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604조4000억 원으로 4년 만에 200

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

거둬진 팽창재정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정부 전망으로 1068조3000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초과 세수가 많이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세수 증대였다는 점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임기내내 팽창재정으로 나랏빚만 늘린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대폭 낮춰 제시했다.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다. 끝없는 퍼주기로 씹씹이만 키운 8%대 예산 증가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이제 그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금으로 댄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 온 탓이다. 재정 부실을 다음 정부에, 또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진료실 풍경

모녀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왔다. 부부는 둘 다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우리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단골, 그러니까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는, 환자와 의사라기보다 이웃과 같은 사이다.

예진을 하면서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물으니 괜찮다면서 '원장님, 애가 요즘 부쩍 피곤해하고 종아리가 당기고, 발목이 아프다고 하네요'라고 한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희원아, 한쪽이 그러니? 양쪽이 그러니?" "양쪽이요." "그럼 아플 때 절뚝거리게 되니?"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밤에 잘 때는 어때?" "밤에는 괜찮은 거 같아요."

종아리와 발목을 꼭꼭 누르며 "이러면 어때? 아프니?" "안 아파요." "어머니, 이상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젊은 애가."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늘어 보이는데..." 애는 "... 어머니가 '맞아요.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체중 때문에 그런 거

쌀 한 포대 반

같아요. 한 번 재볼까요?" "안 돼요. 어떻게 아가씨에게 체중을 재라고 하세요?" "아가씨 이전에 나한테는 환자거든." "뭘 해요."

한참 동안 옥신각신을 하다가 겨우 체중을 잴다. 나, 엄마, 희원이 다 같이. "어때요? 체중계가 말하고 있죠? 저는 완전 표준, 희원이랑 엄마는 비만."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미리 말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 우기기 없기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 세상에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고 필요 이하로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두 사람은 웃기만 한다. "희원이는 표준 체중에 비해 15kg, 그러니까 쌀 한 포대 반, 엄마는 쌀 두 포대를 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마트에서 쌀을 그만쯤 사서 집에 들고 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요." 사실 이런 말도 단골이 아니니 하직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조심스럽다. 유인철 안산유소야청소년과 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세제 넣는 방법부터 BESPOKE 그랑데 시가디를 이유

벨라엘+매미다 일어서 넣어주는 **세제자동투입+**



1일차

한번에 한달분 쥘쥘



7일차

옷감 무게에 따라 세제를 알아서!



15일차

세제 신경 쓸 필요 없이 한달 내내 편하게~



20일차

그랑데 시가세제를 정량으로 딱 맞춰주니까



30일차

세제 낭비 없는 착한 세탁



*한달분 기준(비닐봉지 10개) 용량(세제/유연제) 외용시 주석(세제) 사용 가능. 세제(물 7리) 사용 가능. 세탁물 7리 부피. 표준(세탁) 코스. 세제(투입량) 농축도 표준(용량) 기준. 치수 설명서로 상세(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제(자동투입+·WF2V9500** 모델)에 해당.

가전을 나답게.

벨라엘+매미다 직접 세제를 넣는 **일반세제투입**



1일차

한번에 회분 쥘쥘



7일차

할 때 매미다 계량하고



15일차

할 때 매미다 또 넣고



20일차

흘리고 쏘고



30일차

닫고 치우고 다시 또 넣고



반겨주는 세제투입 OUT